

인권정보자료실		
Ic1.2.29		
1.4	C	
45	6-4	6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NGO 한국위원회

423- 5355, 793-5196

인권정보자료실
Ic1.2.29

일시:1993.12.7(수) 오후1:30-6:00

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

주최: NGO 한국위원회

후원: 정무장관(제2)실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12.13.94	E7.6	

제 1부 동아시아 포럼 보고

사 회: 최 영 희(대한간호협회 회장)

인 사 말: 이 연 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축 사: 권 영 자(정무제2장관)

전체보고: 박 영 혜(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회장)

분과보고:

- * 여성과 정치 - 김정숙(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 * 여성과 인권 - 최영애(성폭력상담소 소장)
- * 개발과 여성 - 이상덕(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 * 여성과 문화 - 한지현(원불교 여성회)
- * 여성과 건강 - 변영순(대한간호협회)
- * 여성과 전쟁.평화 - 권희순(정대협 아시아연대위원장)

종합평가 : 신혜수(한국 여성의 전화 부대표)

토 의

제 2 부 :북경여성대회 준비회의

사회: 김현자(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 NGO한국위원회 사업계획-이미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NGO한국위원회 사업 및 기구구성에 관한 토론

* 북경여성대회 참가신청 안내

부록

동아시아 여성포럼의 목적, 배경 및 성과

박영혜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회장)

한국측 contact person

동아시아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적 제도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목표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에 이 포럼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993년 10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지역 NGO 여성발전 심포지움의 동아시아 여성들의 지역모임에서, 유엔 세계여성대회에 동아시아 여성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1년후 개최를 합의한 모임이 실현된 것이다. 그 첫모임을 일본에서 열도록 한 것이며 1994년 2월 동아시아지역 contact person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발족에 따라 5월에 일본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성단체 대표, 민초조직,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포함한 100여 명의 여성들이 준비하였다고 한다.

동아시아의 오랜 문화, 전통을 공유해온 동아시아는 오늘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중심지가 되어 있는 한편, 경제성장의 정도도 다양하다. 한국, 홍콩, 대만과 같은 나라는 신흥공업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중국과 몽고는 시장경제로의 이전 과정에 있고, 일본은 경제초대국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부터 오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여성포럼의 목적은 첫째, 급격한 경제성장의 영향과 유교이념이 여성의 지위에 미친 영향을 민초여성의 시각으로부터 논의하는데 있다. 둘째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이 지역의 여성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는 동아시아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여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구축하는데 동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첫 포럼의 주최국인 일본 여성은 일본의 식민주의와 군국주의 및 일본 전후 경제개발을 재조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수많은 여성의 고통을 야기시킨 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 포럼에서 갖겠다는 뜻을 발표한 바 있다.

1994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의 동경근교의 가나가와 여성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여성포럼에는 아시아 7개국으로부터 100여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500여명의 일본여성들이 참여하였다. 포럼의 한국측 참가자는 26개단체중 총 46명으로 해외에서 가장 큰 참가단을 이루었으며, 현지에서 통역을 맡아준 재일 여성동포와 개최프로그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한국여성, 한국유학생들을 만났고 모두가 함께 자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랐으나 연락관계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측 참여가 활발하였던 점은 참가자의 수 만큼 내용면에서도 이루어졌으며, 분과별 논문발표자를 비롯하여 분과 의장, 보고자, 소주제별 진행자, 보고자 등 다양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어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여성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평을 들었다. 또한 폐회식에서 중국과 함께 폐회사를 하는 영광을 가졌으며 다음 회의를 한국에서 갖자는 제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한국측 실무위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포럼의 토의 내용은, 여성의 시각에서 이 지역의 경제성장의 유형을 검토하였고, 대안적인 유형을 연구해보았다. 여성개발, 여성과 정치, 여성과 인권, 여성과 교육/문화, 전쟁.평화의 다섯개 분과로 나누어 총 60여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북경대회에 제출할 "21세기를 위한 동아시아 여성선언과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이 결과는 앞으로 동아시아 여성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포럼의 전체 일정이 끝난 후 각국.지역대표 운영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 가운데 북경 여성NGO 포럼에 대만 대표가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향하는 중국측 조직위의 주요인물인 Tien 여사는 오랜 공동풍습을 상기시키며 결코 정치적 해결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여성들의 공통된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측 대표로 참여한 본인은 북한여성의 불참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 회의에서 꼭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국의 노력에 다른 나라도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모두들 공감하였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진출에 관련한 질문에서, 정신대문제의 해결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포럼 참가자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했다.

동아시아 여성포럼이 끝난 후 곧 일본 각지 동경, 기타큐슈, 삿포르, 가나, 다마 등지에서 동시에 열린 심포지움으로 이어졌다. 손봉숙, 신혜수, 이정선, 이상덕 등이 정치참여, 성폭력, 개발을 주제로 한 지역 심포지움에 참여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동경심포지움은 일본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국가보고(발표자: 박영혜)와 포럼의 분야별 보고(개발부문 발표: 이상덕)에 참여하였고, 패널토의(참가자: 정강자)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정신대문제를 부각시키는데 공헌을 하였으며, 일본여성들로부터 많은 서명동참자가 있었다.

결국 동아시아 여성포럼은 무엇보다도 체제와 국가를 초월하여 여성유대를 강화하는 모임이었고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동아시아 여성운동을 촉진시키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는 모임이라고 보겠다.

여성과 정치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1. 정치참여(제1발표)

- 1) 한국여성의 정치적 발전 전략 (발표: ^{김정숙}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 유권자의 의식개혁
 - 여성후보자의 발굴 및 육성 지원
 - 정당활동을 통한 후보자발굴 및 공천할당제 추진
 - 여성단체를 통한 유권자의식교육 및 발굴지원
 - 매스컴을 통한 여성유권자 지원 강화
- 2) 여성정치참여 확대전략(발표: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 법과 정책 및 정당을 통한 여성참여의 제도개혁
 - 여성후보자 교육 및 여성유권자 교육실시 강화
 -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의식교육 실시
 -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3) 정치참여를 위한 여성의 의식(발표: Zheng Zhenzhen 북경대학 여성연구센터)
- 4) 남성지상주의와의 전쟁- 대만여성의 의식(발표: Liu Shyh Fang 대만행동개발위원회)
- 5) 정치참가(발표: 失澤澄子 일본) 김정숙 → 1997년 12월 24일
 - 선거제도의 개혁
 - 할당제의 도입
 - 시민교육 및 개발
 - 여성후보자의 발굴 및 지원
 - 여성후보자와 여성위원의 교육 및 훈련
 - 여성후보자 지원을 위한 정당 내의 기금조성제도 도입

2. 시민운동(제 2발표)

- 1) 시민운동에 있어서의 남녀평등(발표: Kitazawa Yoko 일본)
 - 일본여성운동의 특징:
 - 1)일본여성운동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 2)여성운동 이슈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슈(예:환경,자원재활용 등)
 - 3)여성운동을 통하여 지방정치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 일본여성운동의 활성화방안:
 - 1) 지역사회문제를 지방정치의 정치쟁점화 시도

-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후보자지원과 공명선거 캠페인 등의 적극적 실시
- 3)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자금의 지원

- 2) 열린 시민운동(발표: 샤또 하쓰에 일본BPW연합회 회장)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여성연대 및 세계여성의 연대를 제안
 -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방안
 - 1) "좋은 남성 賞(BEST MAN)"의 제정: 일본 BPW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시상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실시
 - 2) ILO조약 [남녀노동자 특히 가족적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자의 기회균등 및 균등대우에 관한 조약(제 156조)]의 비준을 정부에 요망
 - 3) 민간여성단체의 연대를 통한 정부에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 강화
 - 4) UN개발기금의 국내위원회 조직 및 전국적 활동 강화
 - 5) 국가차원에서 시민운동의 강화와 동시에 [지역행동계획안]의 작성을 통하여 지역활동 활성화
- 3) 정치와 관련된 여성의 요구(발표: Taekko Kojima 신일본부인회)
 - 일본 여성운동의 이슈개발:여성문제 뿐만아니라 빈곤문제, 환경과 평화문제 등 주위의 폭넓은 부문으로 이슈개발이 확대되어야 함.
- 4) 대만에 있어서 여성운동(발표 美蘭虹 대만국립대학 인구연구센터)

3. 여성과 법률 (제3발표)

- 1) 법제도와 남녀평등(발표: Mutsuko Asakura 일본)
 - 여성관련 법체계에 있어서 여성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특히 일본의 법체계는 여성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부적절하며,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남성우월적 법률의 제재를 위하여 더욱 비판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 각국기강안, 1988년 12월 12일, 76권 11면, 12면, 13면
- 2) 여성법률가의 현황(발표: Yuriko Kaminaga 일본)
 - 발표자는 조사를 통하여 여성의 권리보장에 대해 현재 법률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추세에 있음을 강조 박태, 1988년 12월 12일, 76권 11면, 12면, 13면
- 3) 여성과 입법(발표: Masako Owaki 일본)
 -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
- 4) UN 여성차별철폐 조약 이행을 위한 전달체계(발표: Yasuko Yamashita 일본)
 - 유엔의 여성차별철폐 조약의 적극적 이행을 위하여 개인들이 국제기구에 직접 청원 및 전달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
- 5) 일본측의 행동강령제안 사항
 - 여성권리 증진을 위한 여성법률가와 연구원간의 정기적 국제모임 결성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개별적 전달체계의 확보
 -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동,건강,가족,고용에 관한 현행법률 검토
 - 사법부와 같은 모든 법률관련부처에 양성평등교육의 강화

여성과 인권

최 영 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여성과 인권] 분과에서는 다섯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여성의 인권문제(여성에 대한 폭력, 인신매매와 매매춘, 가족과 노령화 사회, 여성의 재생산 권리, 소수민족 여성의 권리)를 다루었다. 진행은 주제별로 법, 제도, 인식적 측면에서의 각국 여성 인권의 실상이 보고되었고, 이의 해결을 위한 자국내 노력과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여성의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급격한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록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성의 인권문제의 양태와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 홍콩, 대만 등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어있고, 이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직장내 성희롱문제와 매매춘 문제, 특히 타국에서 매매되어온 여성들의 인권문제, 그리고 노령화 사회에서의 여성가장의 법, 제도적 권리보장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 성폭력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마카오, 중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아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본 분과에서는 이러한 나라간의 여성인권문제 현안에 대한 차별성을 인지함으로써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대두되는 여성인권 사안에 대한 전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각국의 여성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p24, 28

1. 여성폭력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제를 확보하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여성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주어져야 한다.

2. 인신매매, 매매춘

매매춘은 윤리, 도덕의 무제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문제로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매매춘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고, 인신매매 폭력단 근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가족노령화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재구성하여 여성가장에 대한 경제적, 법적, 사회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4. 재생산 권리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낙태를 결정할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 정부는 여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여아선별 낙태와 우생사상 철폐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소수민족 여성의 권리

소수민족 여성이 갖고 있는 종교, 문화, 전통적 관습을 존중해야 하며, 정부는 소수민족여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NGO는 소수민족 여성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평가**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성인권의 현안과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급격한 경제성장정책과 유교를 동아시아 여성인권문제의 주된 요인으로 보면서 공통된 문제인식에 접근했다. 그러나 나열적이고 단편적인 보고수준에 그침으로서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전략, 경험을 나누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비슷한 경제발전 과정을 밟으며 겪는 여성인권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국가간의 구체적인 연대를 이루는데는 미흡했다.

홍콩 - 노년층 경제가 증가 ...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과 여성

이상덕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개발과 여성분과는 1)여성노동자, 2) 농촌여성, 3) 환경과 공해, 4) ODA, 해외투자, 외채국 문제 등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대만, 몽고, 홍콩, 마카오의 7개 국가와 지역 참가자들이 참여한 것을 볼 때, 동아시아의 경제.사회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여성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문제인식에서도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운동에서 중점을 두는 이슈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은 일본과 선발개도국인 한국, 대만, 시장경제로 탈바꿈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중국, 몽고 등의 NGO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국가간의 이익을 넘어서는 연대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되고, 동아시아 포럼 주제에 대한 사전 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주제선정이 일본여성운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채택된 것 같았다. 따라서 일본을 제외한 각 나라의 참가자들은 분과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듯 깊은 토론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도 개발분과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개발문제와 여성과의 관계, 전세계의 경제가 자유무역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농촌문제(우루과이라운드), 여성노동문제(블루라운드), 환경문제(그린라운드) 등에 대해 통합적인 인식을 공유하지 못했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 따라서 선발개도국으로서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이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의 여성문제에 관심과 함께 연대에 참여하기를 촉구하는 일본여성들의 제안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지가 곤혹스러웠다.

분과토론에서 제기된 문제들 가운데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기술한다. 행동강령은 부록으로 첨부된 행동강령을 참고하길 바란다.

1) 여성노동자 문제

동아시아는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이룬 일본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차별, 고용기회의 제한(파트타임 노동, 용역직), 직업 훈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특히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신인사제도가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의 침해, 모성보호의 미흡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반면에 중국, 몽고 등은 외국인 합자회사에 고용된 여성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 체벌 등의 인권을 유린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70년대 일본의 다국적기업이 한국에서 저지른 상황과 같았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여성노동자 착취문제에 대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2) 농촌여성문제

일본과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촌의 피해를 다같이 우려하였다. 일본여성들은 아시아

로부터 수입되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촌경제의 파탄과 수입식품의 안전성문제에 대해 보고하였고, 인력이 모자라 아시아에서 머느리를 수입해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이들은 농촌여성의 토지에 대한 권리, 가족농업경영에 있어서 결정권의 행사 등을 행동강령에 넣을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농민여성운동 상황의 보고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적 농업으로서 유기농업의 중요성, 그리고 농협 등 농업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보 등에 관해서 보고하였다.

홍콩은 대안적 개발방식으로 신용협동조합 기금으로 여성농민들이 새로운 농업생산과 경영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중국과 몽고는 농업에 있어서도 외자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듯했다. 이에 대해 타국의 참가자들은 중국과 몽고의 NGO들이 농촌파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3) 환경과 공해

한국과 일본, 대만의 참가자들은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이 공해유발과 환경을 파괴해 왔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중국과 몽고 등이 일본, 한국의 개발모델을 따라서는 안된다는 위험성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한국은 다국적기업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저개발국가로 이동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문제와 중국의 급속한 경제개발이 가져온 산성비문제, 황해의 오염 문제 등 동아시아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반적으로 일본여성들의 환경운동은 매우 발전되어 있었다. 그들은 공해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에서 자원재활용, 핵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이슈별로 다양한 조직을 갖고 있었다. 또한 토양보전을 위해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도시소비자와의 연대운동(생활협동조합운동)이 발전되어 있었다. 일본 여성들의 환경운동 경험은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4) ODA, 해외투자, 외채국문제

이 문제는 일본 여성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일본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해외투자, 무역 등이 아시아의 경제발전과정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보고하였다. 일본의 ODA와 해외투자가 저개발국가의 민중생활의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생존터전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또는 일본 다국적기업 진출의 교두보로서 호텔,공장지대, 항만 등의 건설에 쓰여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 ODA 중 무상원조는 거의 없고 대개가 차관형식의 유상원조로서 일본의 엔고현상으로 인해 후진국은 점점 외채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일본 ODA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투자정책에 대해 모니터를 위해 아시아 여성연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ODA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정책모니터를 위해 한국의 여성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하였다. 한편 마쓰이 야요리가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여성연합"에서는 1995년 3월 23-26일까지 아시아여성운동가를 대상으로 "일본ODA와 아시아의 여성"이라는 워킹숍을 가질 것을 발표하였다.

* 한국측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박영혜, 강기원 (한국경제에 있어서 여성기업인의 역할과 활동)
- 김양순 (여성의 직업개발)
- 정장자 (고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 고은실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의 농촌여성)
- 이상덕 (한국의 환경문제와 동아시아 NGO의 역할)

한국경제개발에 있어 여성노동자, 농촌여성, ODA, 해외투자, 환경문제 등 연대적 접근이 필요하다.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이 농촌을 향하여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성과 문화

한지현

(원불교 여성봉공회)

문화분과에서는 교육, 문화, 종교 및 매스미디어에 대해 중국, 한국, 일본에서 4명의 공식발제와 종합토의가 있었다.

亞太지역 전체 회의 때와는 달리 문화적으로 한층 유사성이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새삼 확인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나라가 아직은 강력한 유교영향과 가부장적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몇십년간의 급격한 경제발전이 오히려 가부장문화의 병폐현상을 더욱 악화,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산업화된 시장경제구조 속에서 여성은 불평등한 고용에 의해 값싼 노동력 제공의 원천이 되었고, 대중매체에 의해 나날이 세련된 방법으로 조작되는 소비촉진과 여성의 상품화, 그리고 소비문화가 보여주는 행복한 삶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 제시는 여성의 심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 전체를 불건강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 전체의 개혁을 위해서는

1) 교육: 문맹퇴치와 더불어 여성들이 전통적인 분야가 아닌 전문직 교육을 받도록 장려하고, 초·중·고·대 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전과정에 걸쳐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창조적 주체임을, 그리고 그러한 주체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이제까지의 불평등한 교과과정을 개편한다. (예: 가정 및 순결교육)

2)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짐을 인식하여 미디어정책결정에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정보의 향수자(receiver)가 아니라 전송자(sender)가 되도록 전문직 여성을 양성한다.

3) 문화의 산업화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 자본과 국가의 문화지배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독점기업의 문화산업 진출과 장악현상에 주목하여 이들이 생산, 기획해내는 문화환경을 감시하는 시민운동 차원의 여성운동과 국제적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종교는 교세확장의 욕심에서 벗어나 종단 자체가 안고 있는 성불평등 요소를 과감히 청산하고, 성평등의 구현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해방임을 깨닫게 하는 의식개혁의 주체가 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우리나라 특유의 사정인 분단상황이 여성의 질곡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인식하여 통일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 평가 **

각 분야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제시는 구체적으로 잘 되었다. 교육, 미디어, 문화운동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직 여성의 양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또 각 분야마다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정보교환 및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함도 잘 토의되었다. 그러나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현안 문제들이 가부장문화, 사회에서 유래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의식의 변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식 변혁의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다소 미흡한 느낌이다.

여성과 건강

이대리
변영순
(대한간호협회)

여성의 사회진출은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과 근로에 따른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여성의 건강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임신·출산을 중심으로 한 모자건강 중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여성 건강의 관점을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여성포럼에서 생식·인권부문에서 여성과 건강문제가 국소적으로 다뤄진 것은 문제점이다.

* 문제점 *

- 여성문제에서 기본 자원이 되는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 여성 건강을 임신, 출산, 피임, 낙태에 국한하여 생각한다는 점.
- 성적 자유, 재생산의 권리에만 강조점을 둔다는 점.
- 폐경기 여성, 여성만의 건강문제, 취약점 등이 언급되지 못함.
- 좀더 학술적이지 못함.

이러한 문제 점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 채택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

- 여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리, 사회, 심리, 문화, 환경 요인을 파악하여 보호하는 사회운동
- 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련(연령별, 근로여성별)하고, 실시할 사회적 지원 확보
- 여성 스스로 성감별 방지를 위해 노력
- 여성의 건강관리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에 개설하여 운영
- 모유 수유와 원치않는 임신을 거부할 권리
- 자녀양육에서의 아버지/ 남성의 책임
- AIDS 예방을 위한 안전한 성행위 교육

앞으로 한국의 여성운동 내에서도 여성과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와 사회적 지원 마련을 위한 운동이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 여성과 전쟁·평화

권희순

(정대협 아시아연대위원장)

[여성과 전쟁·평화] 분과는 1) 여성과 전쟁, 2) 여성과 평화의 두 주제로 나누어 토의하였다. 먼저 논의 대상이 된 "여성과 전쟁"에서는 특히 전쟁 책임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재 아시아 여성 사이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중국, 타이완, 일본, 한국의 대표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쟁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화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타이완 대표는 타이완에 있는 전 일본군 위안부들의 현황을 보고했으며, 일본대표는 그동안의 여성운동을 통해 발전된 일본의 운동상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다.

한국 대표로 참가한 권희순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평화"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50년전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법적해결 없이, 특히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아시아의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안했으며, 이 강령은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동아시아 여성포럼의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다. 여기에 또 일본 여성의 제안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광고를, 그 나라의 가장 독자가 많은 일간지에 내자는 행동강령이 첨가되었다.

그 자리에서 곧 한국대표 권희순이 정대협에서 준비해간 반대서명 성명서를 낭독하고, 동아시아 여성포럼에 참석한 여성들이 서명함으로써, 국제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각 워크샵의 결과를 발표하는 전체회의에서도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서명결의를 발표하고 모든 참석자들의 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각 대표들이 서명용지를 가지고 각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본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한 후 정대협으로 우송해 줄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행동강령

1.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한다.
2. 일본 국회가 의결한 사죄와 피해자에게 개인 배상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한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비를 건립하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젊은 세대들을 교육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4.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범죄자를 처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5. 국제법률가협회(ICJ)와 다른 인권단체의 권고를 따르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6. 국제중재재판소(PCA)에 가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국제법 아에서 해결하도록 일본정부에 촉구한다.

7.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기 전에 세계 제2차대전 중에 범한 일본 정부의 비인도적인 범죄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8. 피해국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후원을 하도록 당사국 정부에 촉구한다.

9.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게 촉구한 사항을 아시아의 저명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다.

두번째의 "여성과 평화" 시간에는 현장에서 유춘자, 정숙자, 한명숙이 준비하여 다음과 같은 발제를 하였다

- 전쟁과 분단이 왜 여성에게 고통인가?

일본 침략의 문제, 정신대 여성의 고통, 원폭피해자들의 기형아 출생,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천만명의 이산가족, 방위비 증가(예산의 30%)로 인한 여성복지비 삭감, 군수산업에서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조건, 군사정권하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에서 빈발하는 성폭력,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한 가족해체, 미군기지촌의 성폭력과 매매춘,

- 그리고 한국 여성의 다양한 평화 통일운동, 반핵, 방위비삭감, 회년통일운동, 미군기지철수 제안 등이 전개되고 있는 것,

-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남북여성문화제 제안 등등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일본측에서는 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를 들어, 미국이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전쟁을 독일과는 달리 전혀 불문에 붙이고, 계속 일본 땅을 점유한 채 아시아를 미군 군사기지화 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그리고 반핵에 대한 입장과 함께, IAEA의 NPT협약이 강대국 중심의 불평등한 핵조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핵을 통한 강대국의 신식민지 정책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본의 전범자 처리문제 등이 건의되었다.

정숙자, 한명숙, 유춘자, 정숙자, 한명숙, 유춘자

NHKTV에서 방송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의 평가

신혜수
(한국여성의 전화 부대표)

1.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

1) 이번 「동아시아 여성포럼」은 1993년 11월 16-20일의 마닐라 <아.태지역 NGO회의>에서 조직이 결성된 이후 가진 첫 행사로서, 동아시아 여성들끼리의 연대를 가진 첫번째 회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2) 아시아 7개국에서 600여명이 참가하여 참가자 규모로는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46명, 중국 14명, 대만 16명, 홍콩 14명, 마카오 4명, 몽고 7명, 하바로프스크 2명(참관) 등 100여 명과 일본에서 500여 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측 참가자가 가장 많았던 반면에, 북한에서는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3) 이번 포럼의 목적은 95년의 북경대회를 준비하면서 동아시아 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다지고, 특히 주최국인, 일본은 21세기 동아시아의 비전을 여성들이 만들어 나가자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특히 경제개발로 인한 문제와 가부장 문화로 인한 억압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또 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것들인가가 부각되지 못하였고, 토론의 쟁점이 부러나지 못하였다.

4) 이는 각국의 보고(country report)가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슈를 제기하기보다는 여성의 지위와 문제현상에 대한 나열적 설명에 그쳤기 때문인데 기인한다.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공동의 대응책이 무엇인가 등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였다.>

5)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위협적인 영향력이 이번 회의에서 표출되었다. 대회준비단계에서부터 대만에 대한 칭호와 참가자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고, 중국의 One China policy에 대한 대만 참가자들의 침묵 피켓시위가 폐회식 때 있었다. 1997년 중국반환을 앞두고 있는 홍콩은 벌써 중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인권이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 홍콩참가자에 의해 강조되었다.

6)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 강력한 대처방안을 결의한 것은 이번 회의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대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로 분과회의에서 결의하고 이것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7) 제 2회 동아시아 여성포럼을 1996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여 북경대회 이후에도 이 네트워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동아시아여성포럼이 1996년 개최
북경대회 이후에도 이 네트워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2. 회의준비 및 운영에 대한 평가

1) 대규모회의를 준비할 때의 어려움은 이해가 가지만, 여러가지 진행상의 미비점이 노출되었다. 등록시의 혼란과 더불어 인쇄된 프로그램의 준비도 안되었고, 모든 회의진행의 준비가 해외참가자 보다는 일본인 위주로 진행되었다.

2) 언어문제가 여전히 큰 장애로 드러났다. 통역이 불완전, 불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가 있었다. 회의 공식언어를 일본어, 영어로 한다고 했으나 중국 참가자들은 중국어로 한 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은 영어를 써야했다. 토론시에는 또 모국어로 한 경우가 많아서 통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3) 각 workshop과 그 안의 소분과마다 두사람의 사회자를 두어 진행한 것은 의도는 좋았으나 실제 진행면에서 공동사회자간의 사전 조율작업의 불충분, 의사소통의 불편 등으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4) 가나가와현 당국의 협조를 얻은 것, 많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돋보였다. 특히 여성들의 회의에 젊은 남성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한 것은 부러웠다.

5) 동아시아 여성포럼의 일환으로 동경을 비롯한 10여개 지역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한 것은 일본의 여성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했다고 본다.

3. 한국의 참가에 대한 평가

1) 한국에서 46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참여한 것은 높은 관심도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그러나 숫자에 맞는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의문이다. 회의의 전체방향과 토론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했다.

3) 그 원인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준비과정에서의 미비점이다. 국내에서 1차 세미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country report에 대한 토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 또한 일본측과의 연락상의 미비로 각 workshop내에 소분과별로 발표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미리 알았다면 각 소주제마다 발표할 사람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지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4) NGO한국위원회, 특히 실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상의 미비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닐라 아.태지역 NGO회의 때보다는 진일보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경대회를 준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나와현 당국의 협조, 등록의 원활 → 한국측 (일본)이 가진 장점을 이한 데약, 민감한 100명 있음.

번호	이름	소속	직장번호
1	강기원	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	555-4030
2	고은실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529-6349
3	권희순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회	363-6147
4	김 순	원불교 여성봉공회	816-6903
5	김양순	한국 YWCA	774-9702
6	김은경	총무	529-8075
7	김원혜	요산요수회	988-0053
8	김정숙	한국 여성정치문화 연구소	552-0738
9	문경란	중앙일보 기자	751-5623
10	문정자	걸스카웃 부총재	733-4347
11	민현주	원불교 여성봉공회	631-4393
12	박보희	한국 사회정보 연구원	765-6177
13	박영혜	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	516-9608
14	박종희	대한 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	545-9195
15	변영순	대한 간호협회	279-3618
16	서영준	여성정치문화 연구소	552-0738
17	손봉숙	한국 여성정치연구소	528-1202
18	신낙균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423-5355
19	신민선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	545-9195
20	신혜수	여성의 전화	563-7668
21	우현주	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	516-9608
22	유춘자	한국 여신학자협의회	275-7754
23	이금순	민족통일 연구원	232-4725
24	이덕훈	요산요수회	988-0053
25	이명재	한국 여성유권자 연맹	423-5355
26	이미경	민주당 여성위원회	711-0943
27	이상덕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3141-4477
28	이옥경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	545-9195
29	이정선	대구 여성회	753-3641
30	이정자	우리민족 하나운동	790-5200
31	이청자	한국 여성개발원	356-0070
32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762-6048
33	임순영	성폭력상담소 (가사)	576-7127
34	정강자	한국 여성 민우회	269-5763
35	정경숙	원불교 여성 봉공회	816-6903
36	정미혜	민주당 여성위원회	711-0943
37	정숙자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	275-7754
38	정아이린	한국 바하이 여성회	754-1947
39	조순형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423-5355
40	최영애	성폭력상담소	576-7127
41	최영희	대한 간호협회	279-3618
42	최희규	걸스카웃 부총재	733-4347
43	한명숙	한국 여성단체연합	274-2883
44	한계순	한국 바하이 여성회	754-1947
45	한지현	원불교 여성 봉공회	910-5355
46	한태숙	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	759-7560

부 록

- * 동아시아 여성포럼 프로그램
- * 제 1회 동아시아 여성선언
- * 동아시아인 행동강령
- *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 성명서
- * 각국 · 지역보고
- * 제 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실행위원, 분과 진행자 명단
- * 영문자료(동아시아 여성선언, 행동강령)

동아시아 여성포럼 프로그램

1994. 10.20-22

가나가와 여성센터, 에노시마

10.20(목)	18:00	등록
	19:00-21:00	개회식 및 환영행사
10.21(금)	8:30	등록
	9:30	전체회의
	12:30	점심
	13:30	워크샵
	16:00-18:00	워크샵
10.22(토)	9:00	워크샵
	11:15	워크샵
	13:15	점심
	14:00-16:00	전체회의(행동강령 채택)
		폐회식

* 10.23(일) 동경 심포지움 (주제: 북경대회를 위한 동아시아 여성연대와 21세기를 향한 비전)이 열렸고, 이외에 9개 도시에서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회가 개최됨. 이에 한국측 참가자들은 주제별로 각 지역보고에 초청되어 토론에 참가함.

제 1회 동아시아 여성선언과 행동계획

- 21세기를 향하여 -

“여성의 힘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창조하자”-- 이는 제 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에 참가한 동아시아 여성들의 선언이다. 지금까지 정치, 경제구조의 차이에 의해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들은 강한 자매애로 뭉치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모였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일본은 전 지구적인 경제적 힘을 갖게되었고, 신생공업국인 한국, 대만, 홍콩은 현저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 마카오는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몽고는 시장경제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적 힘은 세계시장에 흘러넘치는 동아시아 생산물들의 가치를 통해서 세계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시아의 상황은 세계인들 사이에서 커다란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시장구조에 기초한 최근의 경제개발방식이 삶의 질, 성평등, 여성의 발전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일상생활과 여성운동 경험의 나눔을 통해서, 이번 포럼 참가자들은 동아시아의 실상을 점검할 수 있었다. 각각의 보고서들은 현재의 경제개발 결과로 파생된 환경파괴와 여성권리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포럼 참가자들은 유교와 가부장제 그리고 다른 종교들,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 성차별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들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특히 뿌리깊은 성별역할분담은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매스미디어, 문화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들은 성평등의 실현이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공감하였다. 우리들은 또한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이 가한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성희생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전쟁이 다시는 동아시아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들은 동아시아 여성들이 시민운동에서 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도 자각하고, 조직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였다. 여성의 권리와 성 평등이 보장되는 더 나은 인간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 속에서, 여성들은 용기와 단호함,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포럼동안의 풍부한 만남의 결과로서 우리 동아시아 여성들은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비전의 하나는 경제개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사회와 문화적 진보인 대안적 개발, 정의와 평등 그리고 남녀, 인간과 자연, 다양한 민족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민주성이 회복된 사회,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문명의 창조를 위한 조화와 협력. 속의 공존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여성에게 지위가 부여되고, 여성운동이 강화되고, 우리들의 자매애를 증진시키며 국가, 민족, 종교, 이데올로기의 제한을 넘어서는 것이 생명력이 될 것이다. 21세기를 위한 동아시아 여성들의 비전을 향한 활동과 북경에서의 제 4차 세계여성대회를 위하여 우리들은 다음의 행동강령을 채택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1994년 10월 22일

일본 에노시마에서 개최됨

제 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에서 채택

동아시아인 행동강령

서언

300 NGO 대표자들이 1994년 10월 20일부터 23일에 걸쳐 일본 동경에서 이번 동아시아 여성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다. 참가자들 모두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느정도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보고하였다.

참가자들은 동아시아 국가가 어느정도까지는 그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으며, 이 지역 여성들이 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여성들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1000년 이상 지배해온 유교사회와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여전히 여성의 지위에 대한 부정적인 압력으로부터 오는 신구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전략에 명시된 목표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인가가 여전히 힘든 과제로 남아있다.

참가자들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평등의 성취, 발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서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법제정과 정책 그리고 경제와 사회개발에서 뿐만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조치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고무시키기를 그들의 정부에 주장하기로 결정하였다.

1.0 개괄

1.1 나이로비 미래전략을 채택한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경축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의 정부와 국민들은 전략 수행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1.2 오늘날 국제적인 상황이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지역 전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간의 연대강화와 함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다.

1.3 대체로 안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협은 제거되지 않고 있으며 냉전의 종식도 이 지역의 안전을 가져오지 않았다. 한반도의 이슈와 때때로 발생하는 긴장된 상황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여성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4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동아시아여성들의 발언권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권력기관 내의 여성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기회의 불평등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성과 남성간의 권력분배는 불균형상태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최상위 권력기관에는 여성정부지도자들이 없다.

1.5 유교문화와 가부장제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역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주의가 깊이 뿌리박혀 있다.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며 여러 국가와 지역의 모든 층에 반영되어 있다.

1.6 몇몇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들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였으나 아직 de jure equality는 de facto equality가 아니며, 그들은 실제로 평등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완벽한 법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여전히 소수 존재하며, 반면에 여전히 여성의 권익이 침해당하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1.7 이 지역에서는 경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제조정과 체계(system)의 전환을 겪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성들에게 전이되어 실직과 구직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든다.

1.8 구조적인 제조정과 체계의 전환은 학교, 병원, 탁아서비스 등과 같은 공공복지서비스가 생겨나는데 영향을 주어, 여성들은 다시 공격의 정면에 맞서게 되었다.

1.9 기술은 경제개발의 구조적 제조정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동아시아는 기술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이끌어 간다. 여성들은 기술발전의 수혜자이며 동시에 희생자이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즉 선진기술은 여성들에게서 참여의 기회를 빼앗게 되어 여성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사용자일뿐이다. 몇몇지역에서는 여성들은 심지어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다.

1.10 경제개발은 또한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켰다.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해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몇몇분야에서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해 이 지역에 가난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아시아의 빈곤은 점차 여성화되고 있다.

1.11 개발은 또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킨다. 환경과 개발은 오늘날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로서모순 관계에 있다. 재앙과 환경오염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인간에게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죽음, 빈곤, 무력감, 기형 등을 유발시킨다.

1.12 동아시아의 초고속 경제발전은 환경보호에 막대한 압력을 가한다. 공기오염, 토양침식, 사막화현상, 환경적 불균형 등은 동아시아 여성들에게 커다란 해를 끼쳤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의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한다.

1.13 여성위생학과 건강의 진전은 여성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고, 산모사망율과 유아사망율을 감소시켰다. 가족계획뿐만 아니라 모성과 유아의 건강보호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의료봉사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많은 지역에서 물수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1.14 전통적인 관념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여성들은 교육에 있어 남성들이 같은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공부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문맹자들이 전체 문맹률의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정치, 사회, 경제생활에서 더 쉽게 침해를 받는다.

1.15 남성우월에 기초한 노동의 분배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지위는 유교문화와 가부장제에 기인한다. 전략을 실행해온 지난 10년동안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10년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1.16 이 지역의 사회적 진보와 문명화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은 여성문제에 대한 전사회적인 문화 형성의 이해를 바꾸는데 달려있다. 여성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공통적인 과업이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전략상의 목표, 즉 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2.0 목표와 행동강령

동아시아 여성포럼 참가자들은 다음의 5가지 문제에 대한 토론과 공동관심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2.1 여성과 개발

목표

개발을 위한 전략의 공식화를 포함하여 자원의 배분과 이용,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에의 여성참여를 위한 동등한 기회부여 등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전반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2.1.1 여성과 경제개발

행동강령

- 정부의 개발전략의 공식화에 있어 여성 네트워크의 활발한 참여와, 지역간의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이용을 수립하기 위한 조정작업을 요구한다.
- 정부부처와의 대화와 연계를 강화하고, 개발전략에 여성들의 견해와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정부가 여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치화하도록 요구한다.
- 산업구조의 재조정에서 여성의 고용기회의 증가와 함께, 점차적으로 실업여성의 수를 줄여 2000년까지는 실업상태인 남녀비율이 균형을 맞추도록 요구한다.
- 개발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보조를 점차 높힐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요구한다.
- 여성들의 생산활동 참여를 위하여 사회화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여성 네트워크들은 경제적인 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자료, 정보 등 여성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1.2 여성고용

행동강령

- 여성 고용구조의 진전된 합리화를 증진시킨다.
- 여성고용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창출하며, 어린이 양육시설과 다른 사회적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NGO들을 조직한다.
- 고용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부과된 비합리적인 조건의 폐지, 동등한 조건하에서의 남녀 동등한 기회의 원칙이 실천되도록 힘쓴다.
- 남녀 동등한 노동에 대한 차별임금의 철폐를 요구한다.
-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을 조직화하고, 일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좀더 경감시키기 위해 남녀가 가사노동의 분담, 자녀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산업구조의 재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성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증진시키도록 요구한다.

2.1.3 농촌여성

행동강령

- 빈곤지역에 있는 농촌여성들의 자립과 자기발전을 돕기 위해 네트워크들을 조직하고, 농업과 실용적인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농촌여성들이 토지에 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돕는다.

- 농촌여성들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NGO들을 조직하고, 생산과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자연농법을 증가시키기 위해 농촌여성들을 지원한다.
- 여성에 대하여 해로운 농약사용을 반대한다.

2.1.4 해외고용

행동강령

- 해외고용 여성들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해외고용 여성들을 위한 법적보호 조치를 정부에게 촉구한다.
- 각 정부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와 권익에 대한 정부간 협정을 맺고, 개별적인 계약에 기초한 불법 이주노동자문제를 조정하도록 촉구한다.
-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NGO를 조직하며, 그들의 노동보호와 보험이 시행되도록 노력한다.
- 국가적, 지역적인 개발프로그램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성네트워크를 조직한다.

2.1.5 환경과 공해

행동강령

- 정부가 여성들과 여성조직들에 의해 수행된 환경보호사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신용대부를 해주도록 요구한다.
- 여성조직들은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보호에 여성들의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 산림과 녹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직화한다.
- 농촌여성들이 생태적 농업(유기농업)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환경보호에 자격있는 여성인력을 개발한다. 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조직화하여, 그들이 다른 여성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1.6 과학과 기술

행동강령

- 과학과 기술에 관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여성대중들을 위한 교육내용에 포함시킨다.
- 여학생들이 최선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도록 권장한다.
- 사회 전체에 여성과학자, 여성기술 전문가의 개발에 관심과 원조를 요청하며, 그들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유리한 환경조성을 창출한다.
- 과학과 기술이 여성 전체의 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한다.

2.1.7 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재정

행동강령

- 정부에 의해서 재정지원 되는 개발사업들의 검토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여성 개발에 유익하고, 평가시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한다.
- 정부가 여성조직에 의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책수행시 우선적인 취급을 하도록 요구한다.
- 정부, 기업, 사업체들이 특별한 목적의 여성개발사업을 위하여 여성개발기금을 조성하도록 촉구한다.

2.1.8 해외투자와 대부

행동강령

- 여성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한 해외투자와 대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간 여성 NGO들의 연대를 강화한다.
- 여성의 권리와 권익을 손상시키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와 대부의 사용을 반대한다.
- 해외투자와 대부에 의해 기금이 조성된 개발사업들을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여성NGO들의 활동을 권장하며, 개발사업들이 여성의 권리와 권익을 손상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2.2 여성과 정치

목표

정치에 있어서 여성참여와 기회의 불평등 상황의 개선을 돕고, 여성들이 실제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2.2.1 정치참여

행동강령

- 여성훈련을 강화한다. 특히 고위직 여성행정공무원의 훈련을 강화한다.
-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할당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 정부기관에 여성 대표자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점차적으로 정책결정과정과 관리층에의 여성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발생하는 변화를 포괄적이며 역동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NGO감시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성별분석에 기초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한다.
- 여성들이 정치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좀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를 권장하며, 여성에게 정치권력을 부여하는 과정에서의 추세와 경향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한다.

2.2.2 사회개발

행동강령

- 여성의 전반적인 자질향상을 도모한다. 즉 여성조직들은 여성에 관한 문명화되고 진보적인 이념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
- 모든 집단의 전체 구성원들이 여성의 권리에 대하여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개발에 있어서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 주택공급과 공공운송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욕구를 고려하고, 여성과 홀로 가정을 꾸려가는 여성에게 우선권을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 사회서비스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단체와 NGO그룹들을 조직하여, 사회개발에 여성이 참여하는 동안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덜어준다.

2.2.3 법의 제정과 시행

행동강령

- UN의 여성관련협약과 기구를 승인,비준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
- 여성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과 조치들을 제정하고, 완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 여성조직들에 의하여 현존하는 법을 검토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조항을 수정한다.
- 성의 평등을 위한 법적 서비스체계의 확립을 촉진하고, 특별히 문맹여성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 여성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부가적인 차별조항을 삭제하도록 촉구한다.

2.3 여성의 인권

목표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de jure equality 뿐만 아니라 de facto equality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평등 사회의 평등

2.3.1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

행동강령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채택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행위를 확장시킨다. 즉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든 행위에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법과 조치들의 완비와, 모든 여성인권보호문제가 법률로서 제정되는 데에 관한 이행과 관리를 위한 건전한 제도를 촉진한다.
- 여성 스스로의 교육과 법률에 의해서 그들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폭력에 대한 저항과 방어능력을 기른다.
- 정의에 입각해서 여성희생자들을 돕고, 걱정과 어려움에서 그들을 해방시킨다.

2.3.2 인신매매, 매매춘, 매춘행위

행동강령

- 여성의 인신매매, 매매춘 및 매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 어린이와 여성을 납치, 약취, 인신매매, 송출, 매매춘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모든 자들을 중형으로 다스릴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 여성이 법적인 감각을 익히며, 자기방어능력을 기르기 위해 법을 지키고, 이해하며 배울 것을 자각하도록 한다.
- 유죄당하고 매매당하거나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준다.

2.3.3 여성과 고령화사회

행동강령

- 가족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을 바꾼다. 그리하여 여성이 가장인 단일부모가정과 다른 형태의 여성가장 가족을 포함하여 "가족"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이며 함축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 여성이 가장인 단일부모가정과 다른 형태의 여성가장 가족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NGO를 동원한다.
- 가족일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NGO들을 조직한다.
-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사일을 나눈다.
- 사회의 고령층을 배려하여 사회보장과 도시와 지방의 편의시설확충에 있어서 고령여성들의 욕구가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
- 사회의 진보적인 발전에 힘과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령여성들을 조직화하도록 NGO를 지원한다.
- 자원의 배분, 특히 증가되는 건강보호에 있어 고령여성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2.3.4 인구와 아이를 낳을 권리

행동강령

-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 유산시킬 권리가 있음을 사회 전체에 이해시켜야 한다.
- 인구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계획을 세운다.
- 인구를 잘 조절하고 관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 산모와 아이의 건강보호에 역점을 두고 산모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 가족계획에 대해 널리 인식하게 하고, 국민들이 피임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한다.

〈2.3.5 소수민족여성〉

행동강령

- 소수민족 여성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적 습관을 존중한다.
- 소수민족여성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 소수민족여성간의 내부적인 교류를 강화한다.
- NGO들이 소수민족여성들에게 공부하고 훈련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소수민족의 문화유산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보호한다.

2.4 여성과 문화

목표

- 유교문화를 재구성하여 가치없는 것은 버리고, 여성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확고한 문화를 구성한다.

2.4.1 교육

행동강령

- 여성이 점차적으로 문맹을 극복하고 여학생들의 학교중퇴율이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전 사회적인 힘을 조직한다.
- 문맹을 퇴치하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여성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NGO 모니터

링 네트워크를 만든다.

- 여성이 중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 여성고용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성의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광범위하게 개한다.
- 여학생들이 첨단과학을 포함한 과학을 배우고,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독점해온 지식분야를 뚫고 들어갈 용기를 갖도록 고무시킨다.

2.4.2 여성과 매체

행동강령

- 여성이 매체에 참여하여 매체의 주제가 되도록 힘쓴다.
- 여성이 매체경영에 참여하며, 특히 고위직 수준에서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 광고에서의 여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매체의 부정적인 보도를 변화시킨다.
- 매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NGO와 대중 네트워크를 만들어 여성에 대한 매체의 차별적이고 불리한 행위에 대처한다.
- 이 분야에서의 경영자를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성의 민감성을 깨닫게 하고, 매체경영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행동을 경계하게 한다.
- 매체 속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을 매체가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동시에 현대 서구소비주의에 의해 매체 속에서 여성을 물질화시키는 표현을 경계하도록 한다.

2.5 여성과 평화

목표

- 동아시아에서 전쟁과 폭력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 스스로를 개발한다.

행동강령

- 전 사회가 평화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평화를 지키고 국가와 지역간, 그리고 국제적인 평화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평화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NGO 네트워크를 조직한다.
- 동아시아 여성이 특별히 군국주의의 재발을 경계하고, 군국주의를 미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응징하도록 매체를 조직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 평화적인 목적에서 핵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여성들이 무력충돌을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며,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여성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 지역여성들을 제외하는 것을 대신하여 지역여성들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세력들과 함께 UN평화유지군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동아시아 지역내의 외국군대 배치를 반대한다. 이 지역의 문제는 여성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민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 평화와 안정은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NGO는 안정된 사회질서의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여성을 위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폭력적인 방해에서 그들을 지키며, 유리한 분위기 속에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그들이 아시아의 전쟁피해자, 특히 중군위안부제도에 의한 여성희생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다하지 않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 일본의 중군위안부는 전쟁범죄이며 반인륜적 범죄이다.

일본 정부는 1994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선언한다.

1. 일본은 정신대라는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제국 육군총사령관은 성병을 방지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군위안부제도를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3-18세 사이의 여성 약 200,000명을 강제로 끌어갔는데, 아시아 점령지의 몇몇 나라에서도 차출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강제모집하였다. 그들은 감금당하고 감시당하는 상태에서 하루에 많게는 50명의 일본군에게 성적봉사를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저항하거나 도주하려 한 사람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였으며 심지어는 살해당하기까지 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러한 "중군위안부"들은 그대로 버려졌다. 일부는 일본국이라는 이름하에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군인들에 의해 자살을 강요당했으며, 나머지는 살해당하였다. 살아남은 소수의 "중군위안부"들만이 연합군에 의해 구출되었다. 중군위안부는 국제법에 의하면 전쟁범죄이며,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2. 일본 정부는 중군위안부라는 범죄행위에 관한 모든 진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사과하지도, 배상하지도, 이에 관련된 범죄자들을 처벌하지도 않았다.

일본정부는 또한 중군위안부로 끌려간 한국 여성에 대한 범죄행위를 시인하지도 않았다. 그렇기는 커녕, 일본정부는 민간재원으로 "자선기금" 또는 "위로금"을 만들어 "중군위안부"들에게 배상을 대신하여 지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여성을 자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자 한다는 증거이다.

3.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기타 인권기구의 권유를 따르지 않는다.

1994년 9월2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일본 정부가 정신대에 관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언명했을 뿐 아니라 희생자들이 완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밟는 당면 행위로서 일본 정부가 권리나 주장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선 문제가 된 여성 1인당 4,000,000\$을 사회복귀를 위한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다른 여러 국제인권기구도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이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4년 8월,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에 관한 소위원회(UN Sub-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 Protection of Minorities)에서는 전문가인 린다 사베즈(Linda Chavez)를 초청하여 소위원회의 제 47차 회의에 내국 무력갈등을 포함한 전쟁기간 중의 제도적 강간, 성적 노예와 노예적 행위의 실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유엔 소위원회는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가 처벌되지 않는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자로 하여금 전쟁기간 중에 행해진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다른 형태의 강제노역에 관한 정보를 참작하도록 권고하기로 결

정하였다.

4. 우리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한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와 중군위안부 문제를 배상할 도덕적,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도국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침략의 희생자, 특히 중군위안부 제도에 의한 여성희생자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성명(또는 단체명) 서명 주소

*** 서명된 문안은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 종로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 평화의 집 B-1호

전화: 263-2802 전송:263-2803

각국 · 지역보고

-편집자 주-

각국 지역보고는 일본, 중국, 한국, 마카오 외에 대만, 홍콩 등에서 발표하였다.
한국보고는 지난 동아시아 여성포럼 참가 준비회의에서 발표하였기 때문에, 본 자료에는 지면상 일본, 중국보고서만을 게재한다.

일본의 경제발전과 여성

1. 기업 중심사회의 여성현실

일본은 경제발전도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이 특색이다. 평균수명, 교육수준 등을 종합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 지수(1994년)는 일본이 세계 제 3위이나, 남녀평등을 더하면 19위로 떨어진다.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110위 이다.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별역할분업을 최대한 이용하는 경제효율 우선의 기업중심사회, 남성중심사회로 여성의 사회진출에는 두꺼운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일본은 '경제만 발전하면 여성은 해방된다'는 이론의 오류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 일본형 경제개발, 근대화 모델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굴절과 환경파괴, 제3세계의 수탈 등을 수반하게 된다.

1995년으로 戰後 50년을 맞는 일본은, 패전의 폐허에서 겨우 20-30년 사이에 미국 다음가는 경제대국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지금은 전세계 GN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부자나라가 되어있다. 세계 최대의 해외투자국, 무역흑자국, 채권국, ODA공여국이며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의 열대목재 수입국, 새우소비국, 인신매매 허용국 등으로 일본의 경제력은 아시아나 전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富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풍요를 실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경제발전은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기업은 자본, 인재, 기술, 정보 등의 모든 자원을 점유하고, 정치나 관료를 이용하여 교육, 대중매체를 지배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윤추구의 논리, 물질적 이익이 우선하고, 정신적인 가치가 경시되는 기업사회, 회사국가가 되어 있다.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의 근대화 정책이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천황에 대한 국민의 충성을 강요한 것에 대신하여 戰後에는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후의 경제발전의 결과, 일본여성들은 고전적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전쟁 전의 가부장제도의 속박에서도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비인간성을 체험하며 그와 싸우고 있는 여성들은, 더욱 인간적인 또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인식 하에 현재와 같은 경제발전이 아닌 또 다른 발전의 길을 찾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경제대국 일본에 이어 신흥공업지역(NIES), 특히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중인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의 성장 중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 중심의 일본모델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발전의 비전을 일본의 여성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여성들과 연대하여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1) 성별역할분업의 장벽과 일하는 여성

기업사회의 경쟁과 효율의 원리에서는 성별역할분업이 적용되고 있다. 남성은 회사인간으로서 인생전체를 회사에 걸고 과로사를 할 정도로 혹사당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회사인간인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다음 세대의 회사인간을 길러내고, 정년을 맞아 가정에 돌아온 회사인간의 노후를 돌보아준다. 그러나 경제의 확대에 의한 일손 부족을 보충해줄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측의

사성과, 소비자사회에서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벌어야 할 필요가 있는 여성들의 사정에 의해 파트타임 노동에 나서는 겸업주부가 늘고있다. 일에 지친 회사인간이 도시의 밤거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들을 위안해주는 性 산업이 비대해져서, 일본, 아시아의 여성들이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경제대국 일본을 좀 단순화시켜본 구도이다.

전후 일본경제발전의 열쇠로 일컬어진 일본적 경영은(연공서열, 종신고용, 기업별 노조) 여성차별을 발판으로 이루어졌다. 60년대의 고도경제성장 이래 고용의 여성화가 확대되어, 여성노동자수는 1960년의 600만명에서 지금은 2,000만 명으로 전체 고용노동자의 40%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은 요원하고 남녀의 임금격차는 남자 100에 대해 여자 49.7%로 공업국 가운데 최대이다.

이는 중단채취직의 M자형 라이프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어 파트타임 노동자가 1/3 정도이고, 풀타임 노동여성의 경우에도 근속연수가 짧고, 저임금의 보조적 직종이나 영세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근년들어 종래 남성의 직업이었던 분야에도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수치로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3.5%, 공인회계사, 세무사 7.1%, 의사 11.4%로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여성의 승진에도 한계가 있어서 전체 피고용자 가운데 관리직 여성은 불과 1%, 남성을 합한 전체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7%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40%, 영국 22.8%, 필리핀, 싱가포르의 2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이 86년의 남녀고용균등법 시행 이후의 실태이다. 이 법률에는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는 종합직과 보조적인 일반직의 코스별 고용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호경기의 인력부족으로 기업측은 여성인력을 전력화할 필요가 생겼으나, 기업전사의 대열에서의 격렬한 경쟁을 꺼려 종합직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그 때문에 불경기 아래 기업측이 여성의 채용을 줄여 여대생의 취직난은 최악의 사태를 맞기에 이르렀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은 명분상으로는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소수의 엘리트여성들과 대다수의 불안정한 저임금 보조노동자 여성을 분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임금 풀타임 노동자나 파트타임 노동자, 불안정한 파견노동자, 과중노동의 자영업 여성, 60만명 이상의 가내적 노동자가 시간당 400엔 정도의 극도한 저임금으로 일하는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의 여성운동의 주류는 전후 일관되게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그를 위한 여성의 노동권, 고용의 남녀균등을 외쳐왔으나, 일본 여성노동의 차별적 구조는 변함이 없다. 이는 일본의 노동조건이 변함없이 가혹한 경쟁, 교묘한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로와 해외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지나친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이다. 고도성장기에는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700시간에도 달하여 그 후 줄어들어 93년 통계에는 1900시간이지만 목표의 1800시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실제 과로사 수준이라 말해지는 3000시간 일하는 남성이 30%나 있는 실정이다. 구미지역보다 4-500시간이나 긴 일본의 노동시간의 단축은 여성의 상황개선의 필수조건이라 하겠다.

장시간노동은 가사, 육아, 출산을 양는 남성은 견딜수 있을지 모르나 여성은 그들 남성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전업주부 혹은 겸업주부로서 가정에서 재생산을 위한 무상노동을 강요당한다. 남녀의 성역할을 바꾸지 않는한 직장에서의 남녀평등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남녀 모두 인간답게 일하고자 轉職者가 늘어나고 셀러리맨을 그만두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본경제의 복귀는 종신고용제도의 기반조차 허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여성들이 어디까지 자신들은 자립과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을까가 문제이다.

2) 회사인간을 지탱해주는 가정

여성차별철폐조항의 최대 주안점은 성별분업의 타파이다. 그러나 UN 여성의 10년 캠페인 등

을 통해서도 일본에서의 남녀의 가사분담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리부의 사회생활 기본조사(91년)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에 24분, 여성은 3시간 2분이다. 남성은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히 계속 일하려면 직장가 가정의 이중부담을 잘 처리하는 수퍼우먼이 되어야 한다. 무리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이나 일별레증후군 등의 심신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이 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과로사에 이르기까지 한다.

여성들이 무리없이 일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가사분담 뿐 아니라, 이제까지 아내가 무상으로 일해온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상품화가 진전되어 조리식품, 베이비시터에서 급식, 입욕서비스 등의 민간실버산업에 이르기까지 만사가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사회복지나 사회보호정책 등의 공적서비스의 불충분함을 기업이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어머니들의 고민거리인 보육시설의 부족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서 아내나 며느리에게 강요되는 노인간호! 고도성장기 서구수준의 "복지국가" 건설을 내건 정부는 70년대초의 석유위기 후 정책을 급격히 바꾸어 "복지재검토"안을 내걸어 (복지)시설에서 집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공적지원에서 민간기업활용으로 그 중점을 옮긴 "일본형 복지사회" "가족기반 총질 정책"이 시행되었다.

80년대 이후, 세금(배우자 특별공제의 신설,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감세), 연금(보험료면제의 주부연금, 유족연금의 인상), 보험(건강보험부양가족의 급부율 인상) 등에 있어서도 부양되는 가정주부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최근의 경제복귀, 민영화로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성별 역할분업을 없애기는 커녕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의 전업주부 대우책은 여성들의 전업주부 희망에 부응하는 면도 갖고 있다. 戰前의 대가족제도 아래서 며느리로서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전후의 근대적 핵가족제도에서 해방감을 맛보고, 직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꺼려 가정에 머무르려 하고 있다. 또한 뿌리깊은 모성주의 하에서는 '육아는 엄마의 손으로'라는 무언의 압력도 있다. 경제적 이유에서 일하려 나간다고 해도 가정에 별 지장을 주지않는 파트타임 노동으로 겸업주부를 선택하게 된다. 고학력 전업주부가 매우 많은 것이 일본의 특색이라 하겠다.

이러한 근대적 핵가족이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억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여성 자신에게도 잘 의식되지 않고 있다. 합계특수 출생률이 불과 1.46%로 극도의 소자녀화가 진행되어 하나나 둘밖에 안되는 자녀에게 아무리 공들여 교육시키고 키우더라도, 자녀가 독립해나가면 남편은 일벌레로 집을 비우고 아내는 허탈감을 레저로 메우나 지역활동에 열심인 주부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직장의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발산시키려는 남편, 일밖에 몰라 교양이 없는 남편, 정년퇴직 후에도 아내에게 고압적으로 권위를 부리는 남편 등 부부간의 의식차,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가정내 폭력, 이혼, 노년이혼 등 가정붕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일본의 이혼율은 구미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지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1993년은 인구 1천명당 이혼율이 1.53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남성들이 현역시절부터 직장밖의 가정생활이나 시민활동 등에서 아내와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는 여유를 갖고, 여성들은 결혼을 하든 안하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과제라 할 수 있다.

3) 성 산업의 확대와 위안부문제

기업사회 일본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성산업의 이상비대화 현상이다. 거액의 기업교제비는 기업전사들의 비즈니스의 장이나 위안의 장인 성 산업에도 쓰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유명한 성 산업지역인 동경 신주꾸의 가부끼쵸는 불과 0.4 평방 킬로에 3,500개 정도의 스펙바들이 밀집하고 있다. 매매춘이 거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소프란도는 전국에 1,300개에 이른

다. 이러한 섹스산업은 정치가의 비호와 경찰과의 유착, 은행음자 등으로 폭력단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

성산업의 번영과 포르노산업은 세트가 되어, 일본에서는 포르노가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해있다. 하루 천만부씩 팔리는 스포츠신문, 수백만부의 타블로이드 석간지, 주간지, 만화잡지, 소녀코믹만화, 베스트셀러 대중소설 등 여성의 성을 모욕하고, 여성에의 폭력적인 성묘사 위주의 포르노적 기사나 사진이 범람하고 있다. 응접실의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밤시간이라 하더라도 전라에 가까운 여성이 불거리로 나오는 나라는 일본 뿐일 것이다. 포르노 그 자체도 옛날의 포르노잡지에 대신하여 성인비디오가 1조원 시장으로 성장, 전국 1만개 이상의 렌탈 점포매상의 1/3을 점하고 있다. 이들은 가까이의 편의점이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중고생들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러한 성의 상품화와 포르노적 환경에서 젊은 여성들이 매춘으로 이끌려가기도 한다. 거기에는 돈보다도 다른 숨은 동기가 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90%가 가정에서의 불만, 70%가 학습부진 등 학교에의 불만을 털어놓고 있으며, 50%가 강간이나 치한 등의 성적피해 경험자로, 폭력단과 연계된 소녀가 반 이상에 달했다. 실로 가정붕괴, 성적 위주의 교육, 성폭력, 폭력단 그리고 배금주의 등 일본사회의 산물이라 하겠다. 위의 소녀들과는 대조적으로 생활을 위해 성산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여성도 적지 않다. 남편의 병이나 사별, 이혼 등으로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밤일밖에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팽창하는 성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은 일본여성만으로는 부족하여, 특히 젊은 여성의 부족을 아시아 각지로부터의 여성들로 메꾸고 있다. 70년대 일본 남성의 대만, 한국, 필리핀, 타이 등 아시아 각국으로의 매춘관광이 빈축을 사고 각국의 여성들로부터 항의의 소리가 높아졌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필리핀여성들이 일본의 성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일본에 오고, 80년대 중반부터는 타이 여성도 늘어났다. 9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의 성산업에 종사하는 아시아 여성은 한국, 대만, 아시아 각국, 중남미 여성까지도 포함하면 10만 이상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타이 여성은 인신매매조직에 의해 일본에 보내져 감금, 폭력을 당하며 매일 매춘을 강요받는 성노예적 상황에 허덕이고 있다. 도망가기 위해 포주를 죽이는 타이여성에 의한 살인사건도 줄을 잇고 있다. 필리핀 여성은 최근 필리핀정부의 노동력 수출정책의 일환으로 엔터테이너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손님과의 교제에서 생겨 유기되거나 곤궁한 상태에 처해있는 일. 필리핀 혼혈아는 필리핀 전역에 일만 이상 있다 한다. 아이의 인권을 찾고 일본의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리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세계 최대의 인신매매 허용국으로 올 3월 동경에서 {여성의 인권 아시아 법정}이 열려 현대의 성노예제인 인신매매와 과거의 성노예제인 위안부 문제를 모두 여성에의 폭력, 여성의 인권침해문제로서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신랄하게 고발하였다. 일본의 군대가 식민지 조선과 대만, 점령지인 중국, 필리핀, 동남아 각지에서 수만의 젊은 여성을 연행하여 '성적위안'을 강제했던 세계에서 그 예를 보기도 못한 "중군위안부"제도는 무로마찌시대 이래의 공창제도, 명치시대 이후의 "가라유끼상"이라 불리어졌던 일본 여성의 해외 수출, 인신매매 정책을 이은 국가에 의한 여성의 성노예화정책이었다.

특히 최대의 피해자를 낸 한국의 여성들은 일본남성의 매춘관광에 대해 이전에는 군사력으로 한국여성들을 위안부로 만들고, 지금은 경제력으로 성취취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지옥과 같은 생활을 강요받다 구사일생으로 고국에 돌아간 위안부들은 유교윤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결혼도 못하고 고독과 빈곤의 삶을 살아왔다. 전후 50년을 앞두고 여성운동에 힘입어 겨우 침묵을 깨고 일본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여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여성의 인권문제로 부각되었다. 일본여성도 위안부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있지만 좀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던 책임은 크다 하겠다.

일본남성의 매춘관광, 아시아 여성의 일본에의 인신매매, 위안부문제 등 아시아에의 성침략과 일본 국내에서의 강간이나 아내, 자녀에 대한 가정내 폭력, 직장에서의 성희롱 등의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가져온 성풍토는 일본적 성차별문화에 기인한다. 먼저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집안의 대를 이을 남자를 낳는 역할의 아내와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창부(정부 공인의 공창도)로 나뉘어져 여성은 정조, 남성은 성적방종이라는 이중기준이 버젓이 통용되었다. 특히 지배층의 유교와 민중에 널리 퍼져 있던 불교가 여성을 부정시하고, 여성의 역할은 성을 부정한 어머니로서 남성에게 헌신하는가 거꾸로 성적으로 봉사하는가의 여성멸시사상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하는 여성들도 있다.

이러한 역사적 요인은 매춘에 대해 너그러운 사회통념을 낳아, 현대의 기업사회에서 최대한 이용되고, 남성들은 管理 사회의 억압의 돌파구를 성산업에서 찾으려 한다.

일본의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갈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자기의 신체나 성.생식에 있어서 자기결정권, 성적 자립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4) 민주주의의 유명무실화

경제는 일류, 정치는 3류라고 말해질 정도로 구태의연하고 뒤떨어진 일본의 정치는 우선 남자의 세계이다. 지방에서 중앙에 이르기까지 "건설업자 정치"로 불리울 정도로 개발업자, 즉 기업과 행정과 정치가 유착하고 있는 것은 최근 몇년간의 구조적인 汚職사건의 적발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금전 체질의 이익유도 정치세계에, 업계의 비호나 자기 자금력 혹은 노조의 후원도 없는 여성들은 쉽게 발들일 수가 없다. 일시적인 마돈나 선풍으로 호소가와 내각에 여성 각료가 3명 입각하고, 최초의 여성 중의원이 탄생하긴 했으나 중의원의 여성 의원은 불과 14인(2.7%)으로 156개국 중 128위,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이다. 지방에서도 47명의 도지사 중 여성은 전후 제로이고, 여성자치단체장은 전국 3,000 지자체중 겨우 4인, 지방의원 가운데 여성은 3.3%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정계진출을 막고 있는 장벽은 역시 성별역할분업이다. 정치는 남자의 일이라는 고정관념과 여성은 가사.육아의 부담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돈'과 '뺨'으로 일군 선거기반은 가부장제의식으로 장남에게 가는 경우가 많아 세습의원이 국회의원의 1/3을 넘는다. 일본은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내보이기라도 하듯이 정치에는 봉건적 체질이 남아 있다.

이러한 구태의연의 정치는 실은 경제발전, 소비문화가 가져온 국민전체의 현상유지 무드, 보수화 특히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 세대의 탈정치 현상,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가장 현대적인 상황과 겹쳐있다. '민'이 정책결정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일본의 민주주의는 이미 형식만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중의 무력화는 학교교육, 문부성 교육정책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 수험교육, 획일화, 관리교육이 펼쳐져 인권교육, 환경교육, 개발교육, 평화교육 등은 경시되어 왔다. 그 결과 개성, 비판능력, 사회적 관심이 희박한 젊은 세대가 등장하였다. 자신의 의견이 없고, 있어도 표현능력이 없는 일본 대학생들의 낮은 지적수준은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자주 지적하는 바이다. 여성의 자립을 추구하는 "성평등 교육" 등은 전무에 가깝고, 남녀 모두 기업사회에 걸맞은 인간으로 재생산되어 간다.

사회교육도 생애교육 등의 명목으로 행정의 대상이 되고, 정치나 사상, 체제 비판은 금기시 되어 있으나 이러한 국가의 간섭에 대한 여성들의 위기감은 희박한 편이다. 또 젊은 세대의 자주적이고 체험적인 정치교육 훈련장이었던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도 사라져 사상없는 일본인을 길러 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 이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일이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손위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질문을 말하면 주위로부터 고립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단일민족이라는 환상 하에서의 폐쇄사회에서는 이질적인 것은 배제되거나 동화를 강
제당한다. 그러한 차별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선주 아이누 민족, 제일 한국인, 외국인노동자,
피차별부락 등의 소수민족 집단들이다. 특히 여성은 최근의 조선인 여학생의 치마저고리 절단사
건에서도 보이듯이 민족차별과 여성차별의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민족의
서로의 차이를 인식해가며, 평등하게 함께 사는 사회를 여성들은 바라고 있다.

5) 환경과 농업의 위기

일본의 경제대국화의 기초를 다진 60년대부터의 경제고도성장은 마나마따 병으로 상징되는 미
중후의 기업공해를 수반, 일본열도는 공해열도로 바뀌었다. 명치유신 이래 추진되어온 일본의 근
대화는 일본공해의 원점으로 일컬어지는 아시오 광독사건(足尾鑛毒事件)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
업과 국가가 유착하여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의 역
사로 점철되었다.

전후 최대의 공해라 일컬어지는 미나마따병도 기업의 논리가 생명의 논리에 우선하여, 치소라
는 기업이 흘려보낸 메틸수은이 천명 이상의 생명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수천명의 건강을
파괴하였다. 특히 태아성 미나마따병은 차세대까지 파괴하는 공해의 무서움을 세계에 알렸다. 환
경오염이 여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현대 산업기술문명의 비극은 미나마따에서 인도의 보팔
로, 구소련의 체르노빌로 이어져 간다. 일본에서도 니이가타 마나마따 병, 이타이이타이 병, 가네
미 병 등의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가 많았다.

그러나 성은 공해의 피해자만으로 머물지 않고 과감히 싸워나갔다. 중증의 심신장애아인 태아
성 미나마따 병 환자를 안고 차별과 편견을 무릎쓰고 행동에 나선 미나마따의 어머니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이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 리조트골프장 개발계획에 저항한
여성들, 또한 식품의 안전이나 대량소비사회의 문제를 파헤치는 운동을 전개한 지역의 여성들....,
기업 중심사회에서 소외당해 주변화되어 있으므로, 여성들은 기업지배하의 지역의 위계를 간파,
남성처럼 그 기업사회에 얽매어 있지 않은 이유로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점도 있다. 그러나 주
부중심의 환경보존운동은, 주부라는 영역을 넘어 성역할분업을 깨고 남녀평등사상을 갖기에는 이
르지 못해 환경운동과 페미니즘을 통합시킨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일본의 경제발전은 또한 공업화 우선정책을 취해 농업을 등안시하여 농업의 위기를 초래했다.
농촌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흡수하여 대량생산한 값싼 공업제품의 수출과 비례하여 농산물수입
이 급증, 일본의 식량 자급율은 50%에 그치게 되었다. 대량의 화학비료와 농약투입으로 겨우 지
탱해온 농업생산은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된 식품에 의한 건강과피해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다.

농업의 위기적 상황은 남성과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떠난 뒤 농업을 떠맡게 된 여성과 고령자
를 심각한 상태로 몰고 있다. 도시로의 가출노동자의 가족, 고령자만의 가족, 후계자가 없는 가
족 등 농촌 가족과 지역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신부를 데려
와 가족의 붕괴를 막아보려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가운데, 안전한 환경과 식품을 찾는 도시의 소비자운동으로부터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어 농촌과 제휴한 산지 직송운동이 널리 전개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농촌
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목적으로 일어난 활동이다. 다만 농촌여성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점은 도시소비자 여성 자신이 '성평등'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농가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생태계의 순환을 중심한 자립농촌 건설의 시도
가 일어나고 있다. 여성의 주체적인 참가 여부가 성공의 열쇠라 하겠다. 환경과 농업의 위기는 기
업중심, 남성 중심의 경제개발의 결과이고, 그 해결에는 여성의 힘이 불가결한 것이다.

6) 아시아에의 가해

전후 일본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시
아지역의 국민들에게 치러야 할 거액의 보상을 소홀히 한데도 원인이 있다. 또한 2국간 협정으로
국가간의 배상은 했으나 그것은 ODA(공적개발원조)에 연계되어 일본의 아시아에의 경제진출의
발판이 되었다. 일본은 기업진출(해외직접투자)과 ODA, 무역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경제권익을 확
대하였다. “군사력으로 실현하지 못했던 대동아공영권을 경제적으로 건설하였다. 이는 재침략이
다” 등등 아시아국민들은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은 70년대부터 활발
해졌다. 일본형 개발모형을 상징하여 일본식 경영을 펼쳤으나, 국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
게 된 계기는 70년대 초반부터의 공해수출이었다. 국내에서 공해반대주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정부에 의한 공해규제의 강화와 공해제판에서의 엄한 판결 등으로, 기업은 공해를 내는 공장이나
공정이 국내에서 어려워지자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지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나라에서 일본계 기업의 공해가 문제화되고, 그 피해는 여성에게 특히 많았다. 예를 살펴보
면 말레이시아의 미쯔비시 계열 합작기업인 아시아.레아스가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려 주민
들의 건강피해를 초래, 법정투쟁이 전개되면서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본계 진출기업은 섬유.전자공장이 많고 노동자의 90%가 저임금의 젊은 미혼여성들이다. 일본
식 경영에 늘 따라다니는 여성차별고용을 수출하고, 농촌출신 여성노동자들을 남성의 직제로 관
리시켜 다도나 꽃꽂이 등을 가르치거나 순종의 미덕을 심으려 노력한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
한 수출가공공단에서는 노동쟁의금지 등의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본계기업은 노조결성
이라는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출가공공단의 정비에는 일본의 ODA(엔 차관)가 공여된 경우가 많다. 120억달러(1조 200억엔)
에 달하는 일본의 ODA는 결국 일본형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익에 쓰여져 일본의 여성이 현지의
여성들과 협력하여 '성평등'의 시각과 환경.인권의 시각에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험은
이제부터 ODA 공여국에 들어올 동아시아 나라의 여성들에게도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나, 무역형태도 특히 아시아 등 제 3세계와의 관계에
서는 불공정하다. 열대우림의 급속한 파괴가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일본은 단일국으로
세계 열대우림의 1/4를 수입하고 있다. 그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사라와크 등지에서는 원주민족이
생활기반을 잃고, 벌채도로를 봉쇄하는 등의 운동을 하다 체포되고 있다. 또 타이에서는 수출용
작물재배를 위해 삼림이 파괴되고, 귀중한 해변의 망그로브림이 일본 상대의 새우양식 때문에 파
괴되고 있다. 일본의 농업위기로 생선, 야채 등의 자급이 어려워 아시아 각국의 농지에서 야채
를 재배하는 일본 기업에 의한 개발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숲도 밭도 바다도 일본인에 빼앗겨
버렸다”는 소리가 아시아에서 들려온다.

이같이 일본의 경제활동이 환경을 파괴하고, 아시아의 빈곤여성들을 더욱 빈곤케하는 “빈곤의
여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실은 일본의 여성들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이
개발문제, 남북문제(선진국과 후진국)에 관해 학습하기 위한 “개발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로부터 빼앗아오는 한편에서 벌어지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기업중심사회를 아
시아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같이 국경을 뛰어넘는 시각이
일본 여성에게 요청되고 있다.

2. 일본여성운동 -투쟁을 계속했던 반세기

일본의 여성들은 기업중심, 남성중심 사회를 변혁하기 위하여 여러 현장에서 투쟁해왔다. 격동
하는 세계 속의 일본에서 여성해방운동과 여성들의 시민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특히

70년대 이후 세계에 널리 퍼진 여성운동과 국제연합의 "세계 여성 10년" 선포로 인해 일본에서도 남녀평등이 사회적으로도 인식되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대단히 진전되었다. 직장에 진출하는 것과 함께 "운동의 여성화"라고 불리는 여러가지 시민운동에 여성이 활약하였고, 또한 개별 여성문제를 다루는 그룹들이나 지역활동그룹이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지 않는 현상유지파의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개 문제에 대해서는 행동하지만, 불공정한 경제발전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여성운동은 아직까지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싸움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결합한 운동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여성의 투쟁이 걸어온 반세기를 돌이켜본다.

1) 노동의 권리와 어머니운동 - 패전 이후 60년대까지

전후 남녀평등을 명시한 신탁법이 제정되어 일본여성은 비로소 법적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그것은 여성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쟁취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점령정책에 의해 위로부터 주어진 여성해방이라 할 수 있다. 전전부터 어느 정도 세를 가지고 있던 전국적 여성단체나 지역 여성회가 결성되기 시작하고, 노동조합 여성부나 혁신계의 여성단체도 차차 결성되어 일본여성운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1955년에는 어머니대회가 개최되면서 어머니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956년에는 제 1회 노동여성 중앙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비키니 섬에서의 핵 실험으로 인한 죽음의 재가 실마리가 된 주부들의 서명운동이 원폭금지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어머니들의 평화운동은 비참한 전쟁체험에 따른 피해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서 공해반대운동과 함께 전후 일본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운동으로 성장하였다.

여성문제에서는 일할 권리를 최대의 과제로 삼은 노동조합 여성부를 중심으로 직장에서의 남녀평등과 모성보장 요구와 같은 운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어머니운동도 각지에서 탁아소 건립과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정력적으로 펼쳐졌다. 그러나 여성단체를 정당계열화 하려는 사회당과 공산당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60년 안보투쟁이 최절되고, 고도성장하의 여성의 직장진출과 핵가족 '마이홈'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운동은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2) 우먼 리브에서 국제연합 10년으로- 70년대

미국의 새로운 여성해방운동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베트남 반전운동이 고양되고,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우먼 리브운동이 일어나서 매스미디어의 흑색선전과 기성여성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때까지 전국적인 조직을 통하여 제도개혁에 치중하던 여성운동과는 달리 조직에 의거하지 않는 여성 하나하나가 개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의식변혁을 시행하면서부터 타부시되었던 성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남녀동등권이 아니라 여성의 논리에서 사회구조, 성별역할분업 그 자체에 도전하는 레디칼한 여성해방사상으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생산성의 논리, 남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기업사회에 첨예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여성해방사상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각지에 리브 그룹이 생겨났다. 각자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여성차별과 관련하여 활동하면서 우생보호법 개악 저지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전국적 여성단체와 저항행동이 확산되면서 1974년에는 법안이 만들어져 여성이 승리하였다. 그후 리브는 하나의 사상으로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체제를 뒤흔드는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한 채 끝을 맺었다.

그러나 1975년 국제연합의 '세계 여성의 해', 그것에 이은 국제연합 '여성 10년'은 여성단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자민당을 지지하는 단체에서 사회공산당계에 이르는 41개 단체는

[세계 여성의 해 일본대회]를 개최하여 남녀평등을 촉진을 결의하고, 그 결의를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그후 국제연합 여성의해 연락회는 52개 단체로 확대되어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제안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전문직 및 직장 여성이 새로운 행동그룹을 결성하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성차별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을 일으켰다. 철강연맹에 소속된 7명의 여성이 직무차별에 대항하여 벌인 재판투쟁, 성별분업을 조장하는 "만드는 사람, 먹는 사람"이라는 텔레비전 CM에 대한 비판, 포르노 반대운동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여성해방의 영향은 사회 각 방면에 침투하여 전국 각지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여성이 행동하여 성과를 얻었다. 아끼다(秋田)상호은행의 남녀임금 차별 재판이나 닛산 자동차에서 처음 시작된 정년차별 재판에서 얻은 승소, 사법 연수교관의 여성차별발언 취소, 가정료를 남녀 모두 받기 위한 운동, 남편이 외국인인 일본 여성은 자식과 함께 일본 국적을 박탈하는 여성차별적 국적법 개정운동에서 보듯이 여성의 힘을 과시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기생관광에 항의하기 위한 매춘관광 반대캠페인을 조직하여 아시아 제3세계 여성과 연대운동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성의 힘은 고도경제성장 하에서 공해반대운동이나 소비자운동에서도 발휘되었다. 공해피해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성들이 식품안전, 석유담합 저지, BHC와 같은 농약문제를 다루고 인명과 환경을 무시하는 개발계획에 반대하여 각지에서 혁신자치제를 탄생시켰다.

3) 페미니즘과 여성의 시대- 80년대에서 90년대

국제연합 여성10년 중간년도인 1980년에는 전국의 여성이 입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1979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조약 서명을 미루던 정부에 압력을 가해 서명에 조인하게 하였다. 조약의 핵심부분인 성별 역할 분업의 철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남녀평등이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1984년 남녀평등과 모성보호를 산후휴가와 같은 직접보호를 삭제한 남녀고용기회평등법을 제출하였다. 고용평등은 단지 목표에 불과하고 기업에 대한 벌칙도 부과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여 노동성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행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한편 대규모모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중행동을 전개하였다. 이전부터 남녀평등이 일본경제 전체에 약영향을 미친다고 저항하던 재계가 받아들인 이 법안은 여성의 대규모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에 가결되었다. 노동분야에서는 1992년에 육아휴직제도가 전면적으로 남녀에 모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여성운동은 많이 변화되었다. 우먼리브는 페미니즘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여성학이 성황을 이루었다. 세간의 조소를 받았던 리브와는 달리 페미니즘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기수들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화려하게 매스컴을 탔다. 지방자치제는 각지에서 훌륭한 여성센타를 만들고, 여성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여성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여성의 시대"라 불리는 것처럼, 1986년에 시행된 균등법 체제하에서 의욕과 능력이 있고, 환경이 좋은 여성들은 캐리어우먼의 길을 열 수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다양화된 여성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첫째, 성폭력과 같은 여성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테마로 부상하였다. sexual harrasement문제가 후구오까 피해여성 재판 투쟁에서 보듯이 사회문제화 되고, 여성 자신에 의한 조사활동도 전개되었다. 여성노동조합이나 지역 유니언이 만들어졌다. 강간에 대응하여 동경과 오오사카에서 구호센타가 발족하였다. 가정내 폭력 조사나 상담활동도 시작되었다. 매춘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이케부

꾸로 매춘 남성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매춘여성에 대한 차별적 판결에 항의하는 운동이 전개되어 이제까지의 매춘문제가 다루던 운동의 영역을 넓혔다. 타이와 같은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자 구호그룹도 각지에서 생겨났다.

둘째, 지방정부에 대한 여성의 참가가 추진되었다. 지역활동이나 소비자운동을 담당하던 주부들을 중심으로 1991년 지방선거에서 1,335명의 여성이 당선되었다. 여성을 정치계로 보내는 운동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예를들어 직거래운동에서부터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수호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자치를 확보하고, 각지에서 생활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1991년 선거에서 수도권에서는 현의회, 정의회에서 61명이나 당선된 생활협동조합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페미니스트 여성의원들이 연맹을 결성하여 지방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세째, 또 하나의 새로운 분야는 국경을 초월한 운동이다. 경제의 지구화와 함께 1980년대에는 일본으로 유입된 외국인 남녀노동자나 아시아인 매춘여성이 급격하게 늘게 되었다. 불법 취업 때문에 인권침해를 받는 아시아인에게 각지의 여성이 구호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기업 진출이나 ODA문제, 열대림 보호문제를 다루는 그룹에도 여성이 참가하였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빈곤해결이나 난민구호같은 NGO 국제협력이 성행하면서 캄보디아나 네키로스 지원활동에도 여성이 활약하게 되었다. 일본의 여성운동이 일국주의에서 비약하는 움직임이다.

3. 앞으로의 과제- 21세기를 향한 변혁의 힘

일본의 경제발전이나 사회진행 방향을 여성의 시점(시각)에서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21세기를 향한 일본 여성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기대된다. 동서 냉전 이후 인류 최대의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남북문제, 환경문제에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일본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하나하나의 의식변혁과 제도의 변혁을 결합하여 일본을 여성차별이 없는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가가 일본여성운동의 과제로 중차대하다.

- 1) 고용, 정치, 가정, 문화, 교육, 미디어 등에서 여성의 힘을 배가하여 성역할 분업을 타파한다.
- 2) 여성해방과 환경보호의 관점을 결합한 여성운동을 강화한다.
- 3) 여성의 인권을 수호하고公私의 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을 없앤다.
- 4) 여성차별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민족 공생사회를 만든다.
- 5) 아시아 및 제3세계와 공정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여성이 빈곤에서 해방되고, 자립하는 남북 문제 해결에 협력한다.
- 6)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강대국의 핵기지가 없는, 민족분쟁이 없는 평화를 창출한다.

중국의 여성 비정부조직과 중국여성 현황

1. 중국의 여성 비정부조직

비정부조직은 중국에서는 대중조직이라 불리운다. 현재 전국 1,500개의 대중조직이 대중조직 등록부 규정에 따라 공민행정부에 등록되어 있다.

중국의 NGO는 자기 규약과 연락망을 갖고 있으며,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조직들은 모두 자기 특성과 대중의 실지적인 이익에 맞게 활동한다. 중국에는 많은 여성 NGO가 있는데 이 중에는 전중국여성동맹(ACWF), 전중국노동연맹 여성노동자위원회, 중국여성기업가협회, 중국여성법률가동맹, 중국여성사법협회, 중국여행협회 여성위원회, 중국여성지질학자위원회, 여성기자협회 등등이 있다.

ACWF는 중국 최대의 전국적인 여성NGO이다. 이 조직은 1949년에 조직되었는데 전국의 각 민족과 각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조직도 있다. 1992년말 현재 60,000 이상의 군.구 이상의 지방여성조직과 810,000 이상의 여성대표회의, 5,800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이 여성단체들은 중국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각도에서 해왔다.

2. 중국여성들의 현황

세계적인 변동시기이지만 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정세는 비교적 안정되어 동아시아에서 나이로비 전략을 실행하는데 좋은 기회를 주었다. 중국의 개혁과 개발정책 실시는 경제적 발전, 정치적 발전, 민족적 단결을 이루었고, 여성의 진출과 발전에도 좋은 조건을 보장했다.

현재 중국 여성들의 상황은 넓은 의미에서 크게 개선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장애가 남아있다. 2000년까지의 "나이로비 미래전략" 목표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여성의 정치참여

"나이로비 전략" 집행과정에서 중국여성들은 정치참가면에서는 진전되었다. 여성들은 각급 인민회의에서 중요한 지위로 참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인민회의 대의원의 21.3%가 여성인데, 이들은 교육, 보건, 환경, 여성의 권리와 권익 보호 등에 깊은 관심이 있으며 중책을 맡은 이들도 있다. 중앙정부 안에는 4명의 여성지도자, 3명의 장관, 14명의 차관이 있는데 이것은 1985년에 비해 1.4% 증가했다. 또 517 도시에서 308명의 시장, 부시장이 여성으로 1985년보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정치참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권익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법"은 각급 여성동맹과 산하 조직들은 여성간부들을 구가 기관, 기업, 기관에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참가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모든 군과 절반의 지방도시에 1995년 이전에 최소 1명의 여성지도자가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인민회의 여성대의원 비율이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점차 높힐 것을 제안한다.

2)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새로운 국가기관

“나이로비 전략”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1990년 2월에 국가협의회가 임명하는 여성사업에 관한 조정위원회를, 1989년 4월 전국인민회의 내무위원회 산하에 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1988년 4월 전국인민정치건설회의 여성청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들 위원회들은 법률작성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이러한 조정기관들은 거의 전국의 모든 성, 시, 지역에도 설치되었다.

3) 여성의 법적 지위

1985년부터 “상속법”, “공민법”, “의무교육법”, “민사소송법”에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원칙이 반영되었다. 한편 국가협의회와 그 부들도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법령과 법규들을 공포하였다.

1992년 4월 3일 “여성의 권익보호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법”이 채택되었다. 이 기본법은 이전의 법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1994년말까지 50% 이상의 성들이 이 법에 관한 조항들을 제출할 것이다.

그러나 공장모집과 대학진학에서 여성차별이 몇 개 부문,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몇 개의 기업 특히 합자운영기업과 개인소유기업 등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보호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여성들의 인격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여성차별의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에 대해 중국 여성들은 각급 정부가 여성법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대책과 매스미디어에서의 여성 모욕과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빈곤문제와 여성

중국영토는 광대하며, 경제적 발전의 불균형적이다. 1983년 중국 전체의 빈곤인구는 125,000,000명이었으며, 그 속에서 60%가 여성과 어린이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교통시설이 불편한 산지와 먼 지역에 산다. 과거 10년동안 정부는 빈곤문제를 위하여 노력해왔는데, 최근에는 ACWF나 과학협회와 같은 비정부조직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다.

5,000,000명 이상의 여성을 위해서 62,679개의 각종 양성기관이 설립되고, 글쓰기강좌로 인한 문맹퇴치, 빈곤감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했다.

1994년 현재 중국 빈곤인구는 3천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은 계속적인 과제이다.

5) 여성고용상황

1992년말 현재 중국의 여성노동자는 56,000,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8%이다. 농촌도시의 기업에는 여성노동자가 40,000,000 여명이고 이는 전체의 40%이다. 중국의 농업은행은 농촌여성들에게 7,000,000,000원 이상을 융자했다. 농촌여성의 생산액은 전농업생산액의 50-60%에 달한다.

중국은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능가한다. 1992년 도시지역에서의 실업률이 2.3%이며 실업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으며, 여성의 직업구성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거기에다 낮은 교육수준, 생리적 조건, 자녀양육, 가사일 등으로 여성들은 취업에 있어 많은 제약을 당하고 있다. 또 동일한 일에 대해 남녀의 임금차별이 있다. 따라서 중국여성들은 정부에게 여성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줄 것, 여성실업률의 감소, 2000년까지 노동배치와 대학진학에서의 불합리한 조건의 폐지, 여성직업구조의 합리화, 사회보장의 개선, 사회적 지원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6) 여성 보건상황

1992년말에 모자보건(MCH)망이 중국의 도시에 구축되었다. 346개의 모자보건 병원(1987년에 비해 27% 증가)과 2,841개소의 보건소와 아동병원이 세워졌다. 도시여성들의 95.8%가 산전검사를 받으며 병원에서의 출산율이 71.7%, 농촌지역은 41.2%이다. 현대적인 조산술을 받는율은 84.1%이다. 1990년 산모사망율은 100,000명 중 94.7명이며 어린이 BCG 접종이 90%이다. 유아사망율은 1000명중 31.42명이다. 중국은 총 인구가 11억 7천만명이다. 중국정부는 계속적인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총 출생율은 2.31명이며 여성들의 피임율은 83%이다.

현재 모자보건의 실시는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탓으로 여성들의 요구에 불충분하다. 여성들은 산모사망율을 50% 줄이고, 조산술 실시를 95%로 늘리고, 농촌여성들을 위한 부인과 질병에 대한 완전한 건강진단의 실시, 식수시설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7) 여성 교육상황

중국은 여성문맹율이 매우 높다. ACWF는 여성문맹율 감소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두가지 배우기”(여성들이 지식을 배우고 현대적인 농업기술을 습득)운동을 통해서 여성문맹율이 1949년의 90%에서 1990년에는 32%로 감소하였다. 1992년 초등학교 취학율은 96.2%이며 중등학교,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여학생비율이 각각 43.1%, 33.7%, 24.8%이다. 각급 교육기관의 여교사는 30-44.5%이다.

현재 남아있는 문제는 높은 비율의 여성문맹자, 농촌여성의 낮은 취학율과 높은 중퇴율,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8) 여성과 환경보호

중국은 세계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구적인 환경문제 뿐만아니라 경제발전에서 초래되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법을 비롯한 법률과 규제책을 마련했으며, 여성들의 환경보호운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들은 “3월 8일 조림사업” 등의 식수운동과 여성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수자원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에도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환경과 개발간의 모순을 풀어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 여성들을 중국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선진기술 도입하고,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사업의 채택 금지 등에 관하여 요구하고 있다.

9) 여성과 평화

평화없이 발전이 없으며, 남녀평등은 두말할 것이 없다. 중국의 여성들은 과거 침략전쟁이 가져온 재난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에 대하여 평화로운 환경의 귀중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여성들은 인근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촉진하여 평화와 독립을 위한 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지지한다. 현재 1,200여 명의 여성의교관들이 있으며 130여개 나라 및 지역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문제를 다루는 480여개의 여성조직들과 교류하고 있다. 또한 이 조직들은 유엔조직들과도 협력한다. 여군은 약 240,000명이다.

현재 중국의 NGO들은 1995년의 북경 여성 NGO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국의 여성들은 포럼준비작업을 개발에 전면적으로 참가하는 과정, 자신의 평등한 권익을 확대하는 과정, 세계여성들의 진보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THE FIRST EAST ASIAN WOMEN'S FORUM

PRESIDENTS

Mitchiko NAKAMURA
TIAN Shu Lan

STEERING COMMITTEE

Yayori MATSUI
HANG Jing
PARK Young Hai
LEE Ping
SHUN Yan Shan
Unenburen NARANSETSEG

DRAFTING COMMITTEE

Yayori MATSUI
Etsuko KAJI
SOHN Bong Souk
CHIANG Lan-hung Nora
LAU Kin Chi
LEE Tina Wai Han
Chairs of 5 workshops
Nor, Noguch : (makao)

WORKSHOP RESPONSIBILITIES

DEVELOPMENT

Logistics	Etsuko SEKIGUCHI
Chair	Reiko INOUE
Reporter	Michiko HIROKI
	Han Tae Sook

1. LABOR Co-Chair

Reporter	Michiko HIROKI
Record	Yang Soon KIM
	Sumiko TAKAGI
	FUJISAWA
	SAWADA

2. AGRICULTURE and FISHERY

Co-Chair	SHA Lian Xiang
Reporter	Emiko NISIZAWA
Record	

3. ENVIRONMENT

Co-Chair	Minako TANAKA
Reporter	Etsuko SEKIGUCHI
Record	OKURA

4. ODA

Co-Chair	Junko KUNINOBU
----------	----------------

Reporter Unenburen NARANSETSEG
Record Reiko INOUE
NAKANO

POLITICAL EMPOWERMENT

Logistics Sachiko OKUMURA
Chair Tamako NAKANISHI
LIAO Ingrid Pi-Ying
Raporter Tamako NAKANISHI
Bong Sook Sohn

1. PARTICIPATION

Co-Chair Tamako NAKANISHI
WANG Jun
Reporter Sumiko YAZAWA
Record

2. GRASSROOTS MOVEMENT

Co-Chair Yoko KITAZAWA
(China/Taiwan)
Reporter Hatsue ANDO
Record

3. LAW

Co-Chair Mutsuko ASAKUKRA
Ki Won KANG
Reporter Masako OWAKI
Record

HUMAN RIGHTS

Logistics Tomoko YUNOMAE
Chair Naoko IYORI
Hei Soo SHIN
Rapporteur Linda WANG
Tina LEE

1. VIOLENCE

Co-Chair Tomoko YUNOMAE
Young Hee CHO
Reporter Masayo NIWA
Record NISHIYAMA

2. TRAFICKING

Co-Chair Naoko MITSUI
LIN Mei-Jung
Reporter Shizuko OSHIMA
Record OKI

3. REPRODUCTION

Co-Chair Kuniko FUNABASHI
BALJINNYAOL
Reporter Etsuko Horiguchi

Record NISHIYAMA

4. FAMILY

Co-Chair Keiko TSUWA
CHAN Zhiang
Reporter Misako IWAMOTO
Record

5. MINORITY

Co-Chair Mieko SUZUKI
Linda WANG
Reporter
Record

CULTURE

Logistics NISHIYAMA
Chair Kuniko FUNABASHI
Nakyun SHIN
Rapporteur
U W E

1. EDUCATION

Co-Chair Junko KUNIBOBU
TSENG Julin
Reporter Emiko KAYA
Record

2. MEDIA

Co-Chair Fukuko KOBAYASHI
WONG Yuen Ling
Reporter Kuniko FUNABASHI
Record

WAR/PEACE

Logistics Chiyo SAITO
Chair Michiko NAKAHARA
Christine TSE
Rapporteur

1. RESPONSIBILITY

Co-Chair Hee Soon Kwon
Reporter Mieko SUZUKI
Record

2. NUCLEAR BASE

Co-Chair Chiyo SAITO
CHAN Zhiang
Reporter Suzuyo TAKASATO
Record

THE FIRST EAST ASIAN WOMEN'S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Toward the 21st Century

"To create the future of East Asia through women's empowerment" -- was the pledge of East Asian women who gathered for the First East Asian Women's Forum. Although separated by differences of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until now, we gathered to forge strong bonds of sisterhood and to raise our voices.

It is said that the 21st Century will be the century of Asia. Japan has become a global economic power; the NIEs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 Korea, Taiwan, Hong Kong -- have achieved outstanding economic development; China and Macao are accelerating economic growth; and Mongolia is moving toward a market economy. The economic energy of East Asia is impacting on the lives of the people of the world through the wealth of its products flooding the world market. The emergence of Asia is capturing great interest among the people of the world.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type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free market system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gender equality and women's advancement. Through sharing experiences regarding daily life and the women's movement, the women participants at this Forum examined East Asian reality. Reports were heard of the serious conditions regarding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the violation of women's rights resulting from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Forum participants discussed their concerns regarding their common experience of sexual discrimination resulting from Confucian, patriarchal and other religious and cultural traditions. Deeply-rooted gender role divisions limit women's participation in policy decision-making in every sphere including economics, politics, society, education, mass media and culture. We maintained that gender equality is still far from being realized. We also maintained that women victims who continue to suffer the wounds inflicted by Japan's past war of aggression should be fully compensated and that war should never again come to East Asia.

We recognized the reality that women in the region have awakened and organized themselves in women's as well as citizens movements. In our struggle to create a more humane society which guarantees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women have demonstrated courage, determination and creativity. As a result of our rich encounter during this Forum, we, the women of East Asia, have explored a vision for the 21st Century. This vision is one not only of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one of social and cultural advancement, with spiritual values; of alternative development; of a just, equitable and democratic society in which men and women, human beings and nature, people of various ethnic groups, "North" and "South", can coexist in harmony and collaborate for the creation of a peaceful and sustainable civiliz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vision, it is vital to empower every woman, to strengthen the women's movement and to foster our sisterhood,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nation, ethnicity, religion and ideology. As we move toward the vision of East Asian women for the 21st Century, as we approach the 4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we declare that we approve the following Plan of Action and will join our strengths to make our vision a reality.

October 22, 1994

Adopted at the First East Asian Women's Forum at Enoshima, Japan

East-Asian Program of Action

Preamble

300 NGO representatives gathered together from Oct. 20 to 23, 1994 in Tokyo, Japan to convene this East-Asian Women's Forum. All the participants reviewed the situation of this region in implementing the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to the Year 2000".

The participants hold that countries and regions in East-Asia have, to varying degrees, achieved successes in implementing the Strategies and that women in this region have made continued progress in their participation in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women in East-Asia still face old and new challenges due to negative pressure on some aspects of women's status arising from thousand years' influence of Confucian society and culture together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region. Hence, how to further the overall realization of the goals set forth in the Strategies still remains an arduous task.

The participants unanimously reiterate that to implement the Strategies, further efforts are required. Women of the East-Asian region are determined to enhance exchanges, support each other and join their efforts for the promotion of advancement of women's status and for the attainment of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in addition to urge their governments to encourage women through legislation, policies and measur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making as well as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1.0 Overview

- 1.1 Since the adoption of the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progress worth congratulating has been achieved in their implementation in East-Asia. Governments and peoples of East-Asian countries and regions have gained positive results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Strategies.
- 1.2 While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world today is turbulent, the East-Asian region as a whole is, comparatively speaking, politically stable, with sustained development in economy and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cooperation, it has become the most vigorously developing area in the world.
- 1.3 Despite of the comparative stability of the situation, the threat of war has not been removed and termination of cold war has not brought safety to this regi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and tense situations which sometimes occur, have aroused great concern of women in this region over peace and safety.

- 1.4 In implementing the Strategies, East-Asian women's initiative in their involvement in politics is increasingly growing. However, proportions of women in organs of power in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are still low, situations of unequal opportunity still exist, the sharing of power between men and women is unbalanced, especially in the highest organ of state power, there are no women government leaders in this region.
- 1.5 Influenced by the Confucian culture and patriarchal society, the old idea of male superiority over the female is deeply rooted in this region, i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can be found in every sphere of social life and is reflected in all strata of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 1.6 Some countries and regions in East-Asia have formulated laws to protect women's rights and interests, yet de jure equality is not de facto equality, and they have by far solved the problem of equality in reality. Besides, there are still a few countries and regions that do not have perfect laws to ensure women's rights, hence women's interests are infringed and their human rights, trampled under foot.
- 1.7 Economy in this region is developing rapidly and undergoing structural readjustment and system change-over. Negative influences arising thereby are often shifted on to women who undertake a lot of pressure that should not have been born on them; difficulties of unemployment and job-seeking often perplex them greatly.
- 1.8 Structural readjustment and system change-over have also affected starting public welfare undertakings such as schools, medical and health services, child care services and etc.. Again, women bear the brunt.
- 1.9 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part in the structural readjus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The East-Asia technologically takes the lead in the Asian-Pacific region, women are beneficiaries of technological progress as well as victims, especially for women who are low in educational level and are engaged in simple labor; some advanced techniques have deprived them of their opportunities of participation, they are no longer creators, but passive users. In a few areas, women even become jobless due to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 1.10 Economic development has also changed people's life. Although, as a whole, the living standard of peoples in this region is raised year by year, yet unbalanced development in some parts decides that there are poor areas in this region. Among the poor people, women constitute the majority, therefore poverty in East-Asia is increasingly feminized.
- 1.11 Development also brings along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re a pair of contradictions of common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Disaster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bring serious problems such as: death, poverty, dis-

ability, miscarriage and fetal anomaly, etc. to human being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 1.12 High-spee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Asia has brought enormous pressur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ir pollution, soil erosion, the tendency of desertification and ecological disequilibrium have done great harm to women in this region. They call upon people of all circles to pay greater attention to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region.
- 1.13 The progress of women's hygiene and health has increased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women in this region and lowered the maternal mortality rate and infant mortality rate. Successful results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as well as in family planning have also been achieved. But in the countryside, people are short of medical services and supplies, and drinking water is inadequate in many areas.
- 1.14 Influenced by traditional concepts, women in East-Asia do not have equal opportunities of enjoying their rights with men to education. Many girls are deprived of schooling or face difficulties in carrying on their studies. As a result, women illiterates constitute a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Women, being deprived of the opportunities to receive education, are more easily to be impaired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ife.
- 1.15 The practice of division of labor based on male superiority over the female and unequal status between men and women in East-Asian are of long standing owing to the influence of the Confucian culture and patriarchal family. To transform attitudes of the society can never be completed within one decade, despite of the great changes in women's role in the last ten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es.
- 1.16 Political stability, sustained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social progress and civilization of this region depend upon the renewal of the understanding of the whole social-cultural formation towards women's issues. Women's problem in the final analysis is a social problem. Therefore, to improve women's status and develop human resources are common tasks of men as well as women in this region. Peoples in East-Asia should continue their efforts and join their hands to strive for the materialization of the goals set in the Strategies —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2.0 Objectives and programs of action

Participants of the East-Asian Women's Forum held discussions on the following five aspects and set forth plans of action on issues of common concern to them as follows:

2.1 Women and development

Objectives

Ensure women's overall involvement in development, including the formulation of strategies for development, allocation and utilization of resources and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2.1.1 Women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of action

- Urge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s networks in the formulation of government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conduct of coordination among regions, making the allocation and utilization of resources more rational;
- Reinforce dialogues and links with governmental departments, reflect women's opinions and demands on development strategies, enabling the government to value and accept women's opinions;
- Urge the increase of opportunities of women's employment in the readjustment of industrial structure and gradually reduce the number of unemployed women, so that unemployed men and women will balance in number by the year 2000;
- Call upon governments at various levels to increase step by step their funds to support women's involvement in development;
- Urge the building up of a socialized service system in the process of women's participation in production. Women's networks should strive to give more support to women in terms of materials, information and loans for their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2.1.2 Women's employment

Program of action

- Promote further rationalization of women's employment structure;
-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women's employment, organize NGOs to provide child care facilities and other social services;
- Mobilize the abolition of unreasonable prerequisites added to women in recruitment of workers, put into practice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between men and women under equal conditions;
- Urge the elimination of unequal pay for equal work between men and women;
- Mobilize women to promote community services, advocate sharing household chores between men and women and bringing up their children together so as to further enlighten the burden of working women;
- Provide assistance to women affected by structural readjustment and push the governments forward to build up the social security system.

2.1.3 Rural women

Program of action

- Organize women's networks to help peasant women in poor areas to be self-reliant and self-improving, train them in culture and practical skills, enabling them to master more than one practical skill;
- Help rural women enjoy the equal right with men to land;
- Organize NGOs to help rural women get loans and provide them with production and technology information;
- Support rural women in their going in for green food production and in building up green bases;
- Appeal for cautiousness in the use of agro-chemicals harmful to women.

2.1.4 Overseas Employment

Program of action

- Urge the governments to organize women more effectively and reasonably for overseas employment, and provide legal protection for them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s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 Urge the governments to sign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on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migrant workers, and coordinate their actions on the issue of illegal migrant-workers based on the insurance of their personal rights;
- Organize NGOs to protect migrant women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and strive for their labor protection and due fringe benefit.
- Coordinate women's networks to urge the consideration for migrant women workers in the national and local development programs.

2.1.5 Environment and pollution

Program of action

- Urge the governments to support environmental protection projects run by women or women's organizations with policies and credit loans;
- Women's organizations participate actively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trengthen their monitoring on environmental protection;
- Organize women's active participation in afforestation projects and build up green bases;
- Help rural women go in for the building up of ecological agriculture;

- Cultivate qualified women personnel in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e training classes for women and through them give guidanc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other women.

2.1.6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 of action

- Popularize knowledge of science and technology, making it part of the contents in education for women masses;
- Encourage girl students to learn and master the latest knowledge of science and technology;
- Call upon the whole society to pay attention to the cultivation of women scientists and women technical experts, create, with joint efforts,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ir development;
- Orient science and technology to advance in the direction favorable to women's all-round development.

2.1.7 Government funds for development projects

Program of action

- Participate actively in reviewing development projects funded by the government, whether it is favorable to women's development is one of the important criteria in evaluation;
- Urge the governments to give first priority to development projects applied by women's organizations and give them preferential treatment in policy;
- Urge the governments, enterprises and undertakings to set up women's development funds for the special purpose of developing women's projects.

2.1.8 Foreign investments and loans

Program of action

- Enhance the connections among inter-regional women's NGOs to provide information to foreign investments and loans to develop women's projects;
- Oppose the use of investments and loans to develop projects impairing women's rights and interests;
- Encourage women's NGOs to monitor and examine projects funded by foreign investments and loans, to ensure that they do not impair women's rights and interests.

2.2 Women and Politics

Objectives

Urge women's over-all involvement in politics and help change the situation of unequal opportunity, making women really enjoy equal rights with men and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2.2.1 Political participation

Program of action

- Reinforce the training of women, especially the training of high ranking women government functionaries;
- Appeal for setting a proportion for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so that there will be certain women representatives in government organs at various levels; gradually raise women's proportions at the decision-making and managerial levels;
- Monitor the setting up of coordination agencies concerning women's status in governments at all levels;
- Establish NGO monitoring networks to comprehensively and dynamically monitor the changes taken place i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different areas and timely provide materials based on sex analysis for governments' reference;
- Encourage and intensify researches on women's issues, timely provide the trend and tendency in the course of bestowing political powers on women, so as to guide them towards better roles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2.2.2 Social development

Program of action

- Go in for the improvement of women's integral qualities; women's organizations should give wide publicity to civilized and progressive ideas on women;
- Go in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women's rights among the entire people of all circles;
- Call upon the governments to provide opportunities to women in social development;
- Call upon the governments to take women's needs into consid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housing and public transport services and give first priority to women and female-headed single parent families;
- Organize women's groups and NGO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rvices, so as to relieve women masses of the trouble back at home during their participation in social development.

2.2.3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s

Program of action

- Urge the governments to sign and ratify United Nations' conventions and instruments with respect to women;
- Appeal for the formulation and perfection of laws and regulations protecting women's rights and interests and improving women's status;
- Examine the existing laws by women's organizations, revise those articles that imply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legal service systems for gender equality, provide legal assistance to women illiterates in particular;
- Urge upon a few countries to delete additional article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s citizenship.

2.3 Women's human rights

Objectives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Striving for not only de jure but de facto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2.3.1 Eliminate violence against women

Program of action

- Urge the governments to adopt all necessary measures to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 Advocate social conduct to respect and care for women; condemn and punish all acts of violence against women;
- Promote the perfection of series of laws and regulations to eliminate violence against women and sound systems for their implementation and supervision so as to make the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all be put into the form of laws;
- Organize women to educate themselves, improve their abilities to safeguard their own rights with laws and enhance their capabilities of prevention and resistance against violence;
- Help women victims by holding justice and by relieving them of their worries and difficulties.

2.3.2 Abduction of and trafficking in women, prostitution or whoring

Program of action

- Call upon the governments to make laws to strictly prohibit the abduction of and trafficking in women, prostitution or whoring;
- Call upon the governments to give severe punishment to whoever involves in kidnapping, swindling, taking over or sending off, transfer or trafficking in women as well as bribing and sheltering, and to such evil practices as prostitution and whoring;
- Go in for the increase of women's legal sense and awareness of learning, understanding and abiding by laws so as to enhance their abilities of self-protection;
- Help women who are abducted or trafficked in or are prostitutes with their recovery, and seek jobs or provide access to employment for them.

2.3.3 Family and aging of society

Program of action

- Renew traditional ideas concerning family, so that the word "family" could have extensive implications such as single parent families headed by women and other women-headed families;
- Mobilize NGOs to provide greater assistance to single parent families headed by women and other women-headed families;
- Organize NGOs to provide consulting services on family affairs;
- Advocate democracy and sharing of household chores by both men and women in the family;
- Call upon the governments to be concerned about the aging of society and to give full consideration to old women's needs in social security and in the building up of facilities in towns and cities;
- Support NGOs in organizing old women to contribute their wisdom and "residual heat" to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 society;
- Give full consideration to old women's needs in resource allocation, especially their needs arising from health protection.

2.3.4 Population and the right to child-bearing

Program of action

- Make the whole society understand women's demands of terminating unwanted pregnancy; women have the rights to abortion;
- Orient family plann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opulation;
- Urge the governments to control and manage population well;

- Urge the governments to attach importance to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and make consistent efforts to reduce maternal mortality rate;
- Popularize knowledge of family planning and adopt measures to facilitate the public to get contraceptives easily.

2.3.5 Women of minority nationalities

Program of action

- Respect the religious, cultural and traditional habits of women of minority nationalities;
- Urge the governments to fully solicit opinions from women of minority nationalities on problems with respect to them;
- Enhance inter-regional exchanges among women of minority nationalities;
- Urge NGOs to create conditions and offer opportunities of studying and training to women of minority nationalities;
- Value and protect the legacies of minority nationalities.

2.4 Women and culture

Objectives

Reform the Confucian culture, discard the dross, select the essential and establish cultural forms that fully respect and are favorable to women's development.

2.4.1 Education

program of action

- Mobilize forces of the whole society to help women gradually overcome illiteracy and reduce girls' drop-out rates step by step;
- Set up NGO monitoring networks to follow the tracks of women in wiping out illiteracy and help girls deprived of education go back to their schools;
- Call upon the governments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enhancing women's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 Extensively develop women's vocational education and skill training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women's employment;
- Encourage girl students to learn science including the most advanced science and have the courage to break through traditionally male-dominated fields of knowledge;

2.4.2 Women and media

Program of action

- Encourage women to participate in or enter into media and strive to be the subject of media;
- Encourage women to be involved in media management, particularly that at the senior-level;
- Change the negative media-report of women, including women's negative image in advertisement;
- Set up NGOs and mass networks to supervise media and react to their unfavorable or discriminatory behavior against women;
- Train managerial personnel in this field, making them fully realize the sensitiveness of sex and guard against behavior unfavorable to women in media management;
- Urge the media to watch out for the reflection of the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in media, and meanwhile, guard against expression of materialization of women in media by modern western consumerism.

2.5 Women and peace

Objectives

Remove the threat of war and violence in East-Asia, enabling women's wide participation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under a peaceful and stable environment, and develop women themselves to the full.

Program of action

- Call upon the entire society to pay attention to peace education, enhance the awareness of viewing the situation as a whole in defending peace and in promoting inter-country,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ful exchanges;
- Organize NGO networks to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kinds of activities for peace;
- Women of East-Asia must especially guard against the revival of militarism, mobilize the media and other public opinions to resolutely condemn all attempts to beautify militarism;
- Encourage the use of nuclear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s;
- Create conditions to allow women's participation in the settlement of armed conflicts, all efforts for peace should reflect women's stand-point;
- Hold discussions with various political forces including local women, instead of excluding them, on U.N. peace-keeping operations;
- Oppose the stationing of foreign military forces in the East-Asian region, matters in this region should be settled together by all the peoples in East-Asia, including women;

---- Peace and stability are prerequisites for social development, NGOs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social order,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women, ensure them against violent disturbances and an all-round development under a favorable atmosphere.